Life p/16

눈도 힐링이 필요합니다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제3092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s p/20

'인형의 집' 美·中 동시방영

세계 2위 대국 중국과 FTA

한중 정상 타결 선언… 상품 90% 이상 개방키로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졌다.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까지 타결하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2%와 자유무역을 하는 'FTA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뉴질랜드, 베트남과 각각 벌이는 FTA 협상도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경제 영토의 80% 돌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한중 FTA 30개월만에 타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초 FTA를 발효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가 2년여만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핵심사안에

철강·유화·가전 수출 활기
LCD 관세 10년내 철폐
쌀 제외 농수산물은 최저
경제영토 세계 3번째로

합의,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 타결됐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서명·발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22개 챕터 타결, 상품 90% 이상 개방=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관세 절감 54억 달러=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50개 국가로 늘어났다. 50개 국가의 GDP 총합은 전세계 GDP의 73.2%에 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세 번째다. 경제영토 순위 역시 칠레(85.1%)와 페루(78.0%)에 이어 세계 3위다.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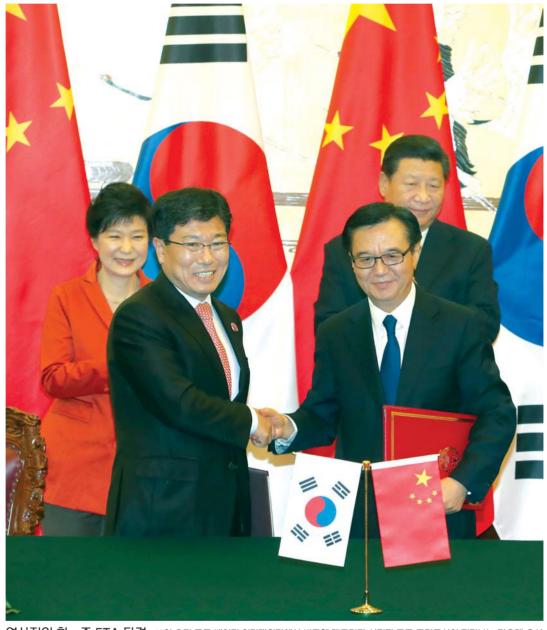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에 따른 자유화(관세 철폐)가 모두 이뤄지면 중국에 수출할 때 절감할 수 있는 관세가 연간 최대 54억4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다. 이에따라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을 비롯해 패션(의류·액세서리), 건강·웰빙제품, 생활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낮은 수준 타결 아쉬움 남겨=경제 전문가들도 이번 한중FTA 타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3%를 교역에 의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이 꼭 필요했다"며 "한중FTA로 전체 GDP의 2~3%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민감한 분야의 품목을 FTA 대상에서 빼면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수산물·공산품 간 민감품목 범위 설정을 놓고 이견을 보여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며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물론 피해도 있겠지만 몇배 이득을 더 볼 기회도 있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아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8·9면>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역사적인 한-중 FTA 타결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서울 4인 가족 김장 비용 17만7000원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보다 16% 싸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를 사면 17만6950원이 들고,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21만39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전통시장 50곳과 대형 유통업체 10곳을 대상으로 4인 가족의 김장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장 주재료와 부재료 13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15.9% 싼 가격으로 김장 재료를 판매했다.

전통시장은 쪽파와 천일염을 대형마트보다 50% 이상 싼 가격으로 판매했고 다발무와 깐마늘, 대파, 생강, 새우젓, 멸치 액젓도 20% 이상 저렴했다. 배추의 경우 전통시장에서는 강원도 고랭지산을 포함해 다양한 크기의 배추를 판매했지만, 유통 업체는 주로 중간 크기 이하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다.

절임 배추 가격은 20포기 기준 평균 7만4211원으로 일반 배추보다 2배 가까이 비쌌다.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포기당 1000원 정도의 절임 수수료를 별도로 받기도 했다.

올해는 국내 배추가 풍작을 이뤄 외국산 배추를 파는 곳은 없었다. 중국산 깐마늘과 고춧가루는 국내에 비해 50%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 /조현정기자 jhj@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알림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
독자 200명 힐링으로 초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송년 음악회가 열린다.

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헨델 메시아&베토벤 합창'이 오는 27일 오후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무대에 오른다. 이번 음악회는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으로 아픔이 많았던 해인만큼 '쉼'과 '힐링'을 주제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레퍼토리로 채워질 예정이다.

서희태가 지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서울시합창단이 헨델의 메시아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연주한다. 지휘자 서희태는 MBC 인기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 강마에의 실제 모델이자 예술 감독을 맡았다.

또 바리톤 김동규, 테너 신동원,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등이 무대에 올라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을 노래한다.

메트로신문은 이번 음악회에 독자 200명을 초대한다. 오는 12일까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참여 할 수 있다. 200명(1인 2매 증정)을 추첨한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다.

metro

박·시진핑 우정 큰 도움

한중 FTA 타결

고비마다 결정적 돌파구… 30개월 줄다리기 끝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선언할 수 있었던 데는 두 정상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친분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5년 첫 만남을 가진 이후 9년간 남다른 인연을 유지하며 서로를 '라오펑여우(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적 친분을 쌓아온 두 정상은 양국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정상 차원의 소통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두 정상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그 결과 당시 1단계 협상에서 맴돌던 FTA는 이러한 문구가 공동성명에 적시된 지 3개월 만인 같은해 9월 7차 협상에서 '품목수 90%, 수입액 85% 개방' 등을 골자로 한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에 합의,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2단계로 넘어간 양국 협상이 지지부진했을 때도 두 정상은 협상 진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바로 지난 7월 초 시 주석의 국빈 방한 때였다.

당시 양국의 FTA 협상은 2단계로 넘어가 4차례 협상이 진행된 상태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중국은 석유 화학이나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민감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두 정상은 정상회담 결과 공동성명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집어넣는데 합의했다.

두 정상이 이날 30개월간 끌어온 FTA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도 한중 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류길재 통일장관, 리퍼트 신임 美 대사 접견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미국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미 있는 기념일'

기자 수첩
정 영 일 <생활유통부 부장>

11월 11일은 누구나 알고 있는 '빼빼로 데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매월 특정 일을 '00 데이' '△△ 데이' 하면서 부산을 떨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부터 유행한 이런 데이 행사는 기존에 정해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모방한 것이다. 이런 데이가 매월 14일의 12개를 비롯해 20여 개를 훌쩍 넘는다.

일각에선 주위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연인이나 친구 등의 애정이나 우정을 돈독히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선물이다. 이런 필요충분조건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식음료업계는 물론 소비재 업체까지 가세하면서 '데이 마케팅'이 일상화 됐다. 기업체의 상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빼빼로 데이도 마찬가지다. 80년대 영남 지역의 여고생들이 1983년 생산된 롯데제과의 빼빼로를 먹고 친구가 빼빼하게(날씬하게) 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이 과자 제품을 주고 받으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여기에 당시 이 제품명을 사용한 제과 업체가 1997년부터 이를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데이 행렬에 시나브로 우리 생활에 끼어들게 됐다.

그러나 11월 11일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기념일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먼저 지난 1년간 수고한 농민을 위로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데이'이기도 하다. 또 대한안과학회가 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한 '눈의 날'이기도 하다. 특히 이 날은 지체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자는 의미의 '지체장애인의 날' 이기도 하다.

'데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체들 중에는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내놓고 있는 등 사회 공헌 활동도 벌인다. 그러나 누구나 아는 빼빼로 데이 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평소 소외받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의미 있는 기념일'이 되길 기대해 본다.

여 "경제 호기" vs 야 "졸속 협상"

한중 FTA 타결 반응은…

여야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게 된 '호기'라고 환영하면서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가 졸속 타결됐다고 비판하며 농어업 등 피해 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며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FTA 효과는 극대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대책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만큼 한중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현정기자

여야 개헌모임, 특위 요구안 제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10일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을 제출했다.

개헌모임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을 오늘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리될 것 같다"고 답했다.

개헌모임에는 여야 의원 154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날 제출될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에는 여야 의원 37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정치권이 총선,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특위가 구성돼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을 매듭짓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사자방(4대강·자원 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려고 하면 성과가 안 난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野, 이부영 등 지역위원장 213명 선정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 중 213명을 확정, 발표했다.

인준이 확정된 지역위원장들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경우로 대다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했다.

다만 현역 지역구 의원이지만 무소속으로 있다 새정치연합에 합류한 강동원 의원과 이강래 전 의원이 경합을 벌인 전남 남원·순창 지역위원장 선정은 보류됐다.

관심 지역구로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희철 전 의원이 경쟁한 서울 관악을 지역위원장은 정 전 대변인에게 돌아갔고, 이부영 상임고문과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백혜련 전 수원지검 검사는 서울 강동갑과 경기 수원을에서 지역위원장을 차지했다.

김교흥(인천 서구강화갑), 문학진(경기 하남), 백원우(경기 시흥갑), 정장선(경기 평택을), 한광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전 의원도 지역위원장에 임명돼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조현정기자

서울시 내년 예산 25조5526억… 올해보다 4.7% 증가

안전·복지 중점… 9조 쓴다

무상 보육·급식 정상편성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526억원으로 편성됐다. 안전과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서울의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2.0% 증가해 내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고, 복지예산은 15.6% 늘어나 약 8조원에 육박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탄탄튼튼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민선 6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5년에는 안전·복지·서울형 창조경제·도시재생·환경 등 5대 역점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된다.

우선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127억원(22.0%) 증가한 1조1801억원이 책정됐다. 전체 예산 대비 안전예산 비율은 4.6%다.

도로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조사·보강에 1345억원, 침수지역 해소 등 수방사업에 456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내년에 처음으로 환기구 예산도 30억원이 배정됐다.

복지예산은 1조 702억원(15.6%) 증가한 7조 9106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 중 34.6%를 차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확충에 947억원이 투입되고 치매 관리 사업에 404억원이 들어간다.

시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정상 편성했고,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사업에도 8101억원을 투입한다.

경제 진흥에는 4596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창업 지원에 282억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에 74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도시기반 시설 공사에는 경전철 건설 783억원을 포함해 총 1조7580억원이 들어간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등 문화예산은 4763억원이 책정됐다. 세운상가 재생사업, 성곽마을 보전 등 도시재생에는 1472억원이 배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내년도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 재정 확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해병대, 서북도서 긴급 증원 훈련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10일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서북도서지역에서 육·해·공 합동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적 도발 상황을 대비한 실전적 도서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긴급상황을 가정해 UH-60, CH-47 헬기를 이용해 서북도서 증원 훈련을 하는 해병대 장병의 모습. /연합뉴스

어린이집 보육 예산 3개월분 편성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인 914억원을 편성했다.

또 필수 사업인 교원 명예퇴직 예산 2562억원과 교육 여건·교육 환경개선(시설비) 예산 3814억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6375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2015년도 예산안 7조6901억원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7조4391억원보다 2509억원(3.4%)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채 발행액을 포함한 것으로,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57억원 감소한 7조526억원이라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교원 명퇴수당은 전년도 661억1600만원보다 늘어난 2562억원으로, 1627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그만큼 신규 임용이 늘어나게 됐다.

시설비 예산은 학교 신설(21개교), 교실 증축(23개교) 등에 2114억원, 노후 시설 보수 등에 1700억원이 편성됐다.

2015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6일께 최종 확정된다. /조현정기자

수능 문답지 배부 10일 오전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5~8호선에 승강기 54대 추가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서울지하철 5~8호선 24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10대와 에스컬레이터 44대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역은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4가역·영등포구청역·신길역·종로3가역, 6호선 신당역·약수역·청구역, 7호선 철산역·천왕역 등 10곳이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곳은 5호선 화곡역(4대)·양평역(2대)·영등포구청역(2대)·올림픽공원역(4대)·6호선 청구역(2대)·한강진역(2대)·안암역(2대)·월곡역(2대), 8호선 문정역(2대) 등이다.

승강기 설치는 2016년 초까지 완료된다. /유주영기자

내년부터 경찰 공채 때 도핑 테스트 도입

체력 고득점자 우선

경찰관 공채 체력 검정 응시자들이 약물을 복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핑 테스트(약물검사)가 도입된다. 검사 대상은 체력 검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으로 한정했다.

경찰청은 10일 부정 약물 검사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9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약물 검사 의뢰 비용은 건당 30만원으로 우선 내년에는 체력 검정 고득점자로 대상을 제한해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교과목만으로도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 기업 취업 준비생도 몰리면서 올해 2차 순경 공채 시험에는 역대 최다인 6만1297명이 지원했다.

체력 검정은 100m 달리기·1000m 달리기·윗몸 일으키기·좌우 악력·팔굽혀펴기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항목당 10점씩 총 50점이다. /유주영기자 boa@

서울대 교수, 女 인턴 추행혐의 수사

여자 인턴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A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서울 한강공원의 한 벤치에서 B씨를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이들은 당시 행사 조직위원회 회식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B씨는 이 같은 일이 있고 다음 날 인턴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유주영기자

'방화동 마이클잭슨' 이철희씨는 아침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정리 봉사를 하며 "항상 행복하다"고 말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사람이야기

■강서구 방화동 '마이클잭슨' 이철희씨

'작은 거인'으로 수차례 TV 출연 유명인사
"빨간옷 아저씨…아이들 안전은 내가 책임"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송화초등학교 앞 신호등. 밀린 차량과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유난히 눈에 띄는 빨간 옷의 남성이 있다. 키 150cm의 '작은 거인' 이철희(69)씨다. 이씨는 춤을 추며 지휘를 하듯 힘찬 손짓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30년 넘게 강서구 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며 '방화동 마이클잭슨' '방화동 빨간옷 아저씨' '방화동 봉사왕' 등으로 불리고 있다.

◆ 주체할 수 없는 끼!

이씨는 방화동의 시민 자원 경찰로 매일 아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라며 인사를 건넨다. 차량들은 도로 한복판에서 춤추는 듯 한 그의 수신호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서고, 움직인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아침을 여는 시민들의 마음까지 한 번에 뻥 뚫는 느낌이었다.

'작은 거인'으로 2007~2008년 KBS1 '아침마당'에 출연했고, 개그맨 이경규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칭찬합시다'의 147회 주인공에 뽑히는 등 이미 이 지역에서는 유명인사다. 지역 봉사를 통해 대통령상, 내무부장관상 등 수많은 표창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알리려고 한 일은 아닌데 상을 많이 받아 부끄럽기도 하죠. 그냥 한 줌 부끄러움 없는 진실한 삶을 살고 갔다고 기억되고 싶어요."

◆ 고희 바라보는 '작은 거인'

체구는 작지만 머리카락도 까맣고 목소리가 우렁차,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그가 건넨 명함에는 '선행' '덕행' '실행' '사랑'이라는 문구가 머리맡에 적혀 있었다. '깔끄미 자원봉사대 회장' '푸른신호등 자원봉사대 회장' '한울 자원봉사대 회장' '한사랑 자원봉사대 고문' 등 수많은 봉사단체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다.

깔끄미 자원봉사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던 초기에 결성됐다. 당시 주민들은 쓰레기를 아무 봉투에나 담아 옆집, 하수구 등에 버려 길거리는 온통 쓰레기 천지였다. 그는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쓰레기를 치웠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고 홍보했다.

"참 욕도 많이 먹었어요. 돈 주고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담으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사실 초기만 해도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비쌌거든요"

이철희씨는 주민 홍보와 함께 구청 등도 찾아다니며 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민관이 서로 조율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종량제 봉투가 정착하는데 일조를 했다.

◆ 봉사하는 삶 도와준 아내

교통정리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50년 전 하나 밖에 없는 누이가 당한 뺑소니 교통사고 때문이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였던 누이는 사고 당시 너무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3년 넘게 병원에서 생활하며 누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후유증에 고생하며 10년간 병원 생활을 한 거 같아요. 재산은 병원비로 다 쓰였죠. 하지만 지금 누이가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또 저를 믿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볼 때 마다 행복하구요."

문영혜 송화초등학교장은 "이철희씨 덕에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 등교길이 행복하다"며 "학생들 인성 형성에도 많은 보탬이 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만간 막내 녀석이 아이를 낳아요. 손자만 다섯인데 막내 녀석에게 이번에 손녀를 낳으면 커다란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인생이란 것이 참 행복하지요!"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현대중공업 과장급 이상 연봉제

총액 줄어들면 반발 예상

3분기에도 기록적인 영업손실을 낸 현대중공업이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0일 "전국 사업장의 과장급 이상 직원의 임금 체계를 현행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할 방침을 세우고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회사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를 한 언론매체가 듣고 보도했는 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연봉제 전환은 지난달 임원 31% 감축,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영업본부 통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이은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근무 연차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로 인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대우함으로써 조직 문화가 타성에 젖어 있다고 보고 이를 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0대 그룹 가운데 호봉제 회사는 우리가 유일할 것"이라며 연봉제 전환은 회사가 위기 상황인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인 동시에 시대 흐름에 따라 채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봉제로 전환하면 능력에 따라 임금을 더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개혁 작업의 일환인 만큼 총액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되는 사람도 속출할 것으로 보여 내부 반발도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직원 2만7246명(계약직 1233명 포함)에게 평균 급여 7232만2000원을 지급해 연간 급여 총액이 1조9704억8270만원에 달했다. /김민준기자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에 금춘수 전 한화차이나 사장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오랜 경험을 두루 축적한 금춘수(사진) 전 한화차이나 사장을 10일 그룹 경영기획실장에 임명했다.

최근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한화그룹도 경영개선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그간 그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금융과 태양광 등 주력회사의 사업실적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답보 상태에 있어 새로운 변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화그룹은 이에 따라 금융·태양광·석유화학·레저 등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변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반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등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룹 경영기획실장을 먼저 교체했다.

금춘수 신임 경영기획실장은 2007년부터 4년여간 한화그룹의 첫번째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이후 최근까지 한화차이나 사장을 맡으며 태양광과 금융,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동향을 경험하는 등 글로벌 경영역량을 쌓았다.

한화는 금 실장을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두번째 임명해 위기관리 능력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통해 현재의 경영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금 실장은 1978년 한화그룹 입사 이후 국내외 사업장을 오가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했고, 2004년부터는 한화생명 경영지원실장을 맡아 이 회사의 인수 전 누적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는 등 괄목할만한 경영실적을 이뤘다.

최금암 전 경영기획실장은 여천NCC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최 대표이사 내정자는 1983년 한화그룹 입사 이후 석유화학 업계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유가하락과 중국시장 공세, 엔화약세 등으로 석유화학 업계의 전반적인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여천NCC로 전진 배치됐다.

한화는 최근 몇년간 순위가 하위권에 맴돌던 한화이글스 대표이사 자리에 김충범 부사장을 내정했다. 김 대표이사 내정자는 1982년 입사 이후 한화·화약을 거쳐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한화는 김성근 감독을 영입한 데 이어 구단주를 오랫동안 보필했던 김 전 비서실장을 한화이글스 대표로 내정해 이글스가 구단주와 선수단·팬들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ksgit@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metro Brazil

sequestro a
ta os brasili

정부청사 앞 인질극 TV 생중계

브라질리아 정부 청사 앞에서 한 남성이 여성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장면은 브라질 전역에 TV 생중계로 방영돼 시민들 사이에 공포감이 확산됐다. 인질범은 여성의 목에 칼을 갖다 대고 약 40분 동안 인질극을 벌였다. 인질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군경 측은 인질범과 협상을 시도했고 결국 고무탄으로 그를 제압,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metro France

où le café est le plus cher

커피가 가장 비싼 도시는?

프랑스에서 커피가 가장 비싼 도시가 공개됐다. 매년 공개되는 지역별 커피지표를 살펴보면 알비시가 가장 높았다. 5만명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도시의 에스프레소 평균 가격은 1.92 유로(약 2601원)다. 반면 커피가 가장 저렴한 도시로는 오리악이 꼽혔다. 오리악의 에스프레소 평균 가격은 1.38 유로(약 1869원)다. 한 시민은 "커피 가격도 비싸고 요즘엔 바가 유행해 카페의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metro Colombia

Regresa a Bogo

마음속 깊은 고민 공유해 치유하는 '두려움 페스티벌'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두려움 페스티벌'이 열려 화제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보고타 모데르노 체육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콜롬비아 비정부기구단체인 '국경 없는 평화(PSF)'와 '콜롬비아 독립 언론회(REIC)'등이 공동 주최한다.

페스티벌이지만 신나게 웃고 떠드는 자리는 아니다. 참가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 페스티벌은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장에는 '여성의 두려움', '두려움 없는 여성' 등의 이름이 붙은 특별한 공간이 있다.

여성의 두려움에서는 폭력이나 억압, 그리고 독립적이지 못한 생활을 경험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두려움 없는 여성은 세계 각국에서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인물을 조명하는 공간이다.

이 밖에도 각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 현장에서 공연을 펼치고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체육관 한쪽에 서 있는 '두려움 나무'도 눈길을 끈다. 나무에는 보고타 시민이 직접 쓴 '두려움 카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두려움 나무는 2달 전 보고타 시내에 설치됐다. /정리=조선미기자

속옷 입고 쇼핑하면 옷이 공짜!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솔로데이'서 알몸 판촉 행사 열어 논란

블랙프라이데이는(11월 추수감사절 다음 날)는 미국 최대의 쇼핑 대목이다. 중국에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솔로데이'(11월 11일)가 있다. 솔로를 뜻하는 숫자 '1'이 4개나 겹쳐 솔로데이로 불린다. 최근 솔로데이를 맞아 한 쇼핑몰이 알몸 판촉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다.

지난 8일 우한시의 한 쇼핑몰은 '벗으면 계산한다'는 행사를 열었다. 속옷만 입은 고객 100명을 위해 옷 1000위안(약 17만7000 원)어치를 대신 계산해 주는 이색 행사다.

행사에 참여한 남성은 팬티만, 여성은 팬티와 브래지어까지 입을 수 있고 30여 개 브랜드에서 쇼핑할 수 있다. 중국어로 '벗는다'는 뜻의 단어 '튀광'(脫光)에 '솔로를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쇼핑몰 측은 밝혔다.

고객들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쇼핑몰 앞에 길게 줄을 섰다. 쇼핑몰은 고객의 민망함을 덜기 위해 쇼핑을 도와줄 속옷 모델 100명도 배치했다.

한 고객은 "평상시 운동을 할 때도 짧은 바지만 입는다. 오늘은 함께 벗는 사람도 많아서 좋다"고 했다. 남편과 같이 온 장모씨는 여성복 코너에서 699위안 짜리 모피코트와 299위안 짜리 스커트를 하나 사서 제한 금액을 거의 맞췄다. 그는 "이런 행사가 있는 줄 몰랐다. 상황을 보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참가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알몸 고객들은 조금 부끄러운 듯한 모습으로 재빨리 옷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는 다른 고객들은 휴대전화로 이들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행사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엇갈렸다.

쇼핑을 하러 온 허모씨는 "이런 성적 마케팅은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행사에 반대했다. 다른 시민도 "너무 저속한 행사다. 판촉 행사가 변질됐다"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반면 "몸매가 좋은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옷을 벗었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데 왜 남이 이러쿵저러쿵 하는가"라며 행사가 도덕적인 문제와 상관없다는 쇼핑객도 있었다.

행사 기획자는 "처음에는 참가자가 별로 없을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을 보니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개방적이었다"며 "참가자 모두 즐거워 보였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1958.23 (+18.36)

코스닥 539.22 (−0.68)

금리(국고채 3년) 2.12 (+0.03)

환율(원·달러) 1085.10 (−8.40)

IPTV 쓰면 모바일TV 공짜

KT미디어허브의 올레tv모바일이 IPTV 서비스 올레tv의 신규 및 재약정 고객 대상 무료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T미디어허브는 올레tv 신규 또는 재약정 고객에게 올레tv모바일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올레tv모바일 월정액(월 5000원)에 가입하면 80여개 실시간 채널은 물론, 무료 주문형비디오(VOD) 3만5000여 편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로 즐길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올레tv모바일에 로그인한 이용자 전원에게 '올레샵 기어서클 40% 할인권'을 증정한다. 또 추첨을 통해 매월 총 3000여 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비롯해 백화점 상품권, TV포인트 등을 준다.

올레tv 신규 및 재약정은 고객센터 100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레tv모바일은 올레마켓,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이재영기자

'단통법' 이후 알뜰폰 시장 '활기'

issue&view
알뜰폰도 경쟁시대

가입자 급증, 지속적인 성장세… 기업 실적 상승도 견인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알뜰폰의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한달 간 알뜰폰 업계는 번호이동 시장에서 7만3941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이 3만4489명, KT 2만6856명, LG유플러스가 9만1443명의 가입자 순감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확연히 대비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값싼 알뜰폰이나 중고폰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절감 효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알뜰폰 효과에 주목했다.

당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통 3사의 가입자당 월평균매출액(ARPU)이 3만1263원인데 비해 알뜰폰은 1만1935원으로 62%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연도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산출하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약 1조5655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의 이야기처럼 알뜰폰 사업자들이 아직은 사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입자 확대에 힘입어 그 적자폭도 점차 줄여가고 있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CJ헬로비전은 알뜰폰 '헬로모바일'의 가입자가 올해 3분기 5만7999명 증가하며 79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은 1만8892원으로 전 분기(1만8606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헬로모바일의 3분기 매출액은 8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전 분기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CJ헬로비전은 헬로모바일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권가는 아이즈비전에 대해서도 알뜰폰 '아이즈모바일' 사업 성장에 힘입어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BK증권은 지난 7일 "알뜰폰 시장 확대로 아이즈모바일의 가입자 또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50억원으로 예상되고, 내년엔 정부의 알뜰폰 시장 확대 정책과 독자적 영업 활동 강화를 통해 매출이 66.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체국 알뜰폰의 괄목적인 성장도 눈여겨 볼만 하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는 10월 말 현재 1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큰사람, 스마텔, 위너스텔, 온세텔레콤 등 4개 사업자가 추가되며, 총 10개 사업자가 우체국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

이처럼 꾸준한 성장세에 알뜰폰 진출 사업자도 늘고 있다. 올해 KT와 LG유플러스가 자회사 KTIS, 미디어로그를 앞세워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주화에 담긴 문화유산 한국조폐공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서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오는 14일까지 농협은행·우리은행의 전국 2000여개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www.wooribank.com)를 통해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에 예약 접수한다. /연합뉴스

취업준비생 평균 20개 이력서 작성

하반기 취업 준비생이 상반기보다 이력서를 6개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취업 준비생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구직자 한명당 평균 19.7개의 이력서를 쓰고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상반기 같은 조사에서 한명당 평균 13.5개 기업에 지원한 것에 비해 45% 증가한 수치다. 취업하기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하반기 공채가 마무리에 접어든 가운데 '서류전형을 한번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33.9%나 됐다. 서류전형 문턱을 한번밖에 못 넘었다는 응답은 16.9%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2곳(13%), 3곳(10.9%), 4곳(8.6%) 등으로 이력서 작성 건수와 서류 통과율의 상관 관계는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입사 지원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 취업 합격률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구직자들의 89.7%는 필기나 면접 시험을 보더라도 다른 기업의 이력서를 쓰겠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서류전형에 붙었다고 최종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어서'(87.6%)였다.

한편 지원 기업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50.4%는 '내 수준과 비슷하게 지원한다'고 답했다. '상향지원'은 38.1%, '하향지원'은 11.5%였다. /장윤희기자 unique@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반전' 노린다

신형 변속기로 연비 개선… 내년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도 출시

현대자동차가 쏘나타에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판매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오는 2020년까지 평균 연비를 25% 높이는 '2020 연비향상 로드맵'을 최근 공개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터보 엔진을 늘리고 변속기의 다단화를 추진해 연비를 대폭 향상시킨다는 게 이 로드맵의 핵심이다.

이러한 플랜과 함께 현대차는 기존 파워트레인의 확대 적용과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 등으로 연비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우선 쏘나타 라인업의 다양화가 시도된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LF)를 내놓으면서 2.0, 2.4 CVV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2종류만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엔진은 기존 엔진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이끌지 못했다. 신형 쏘나타 출시 전에는 연비를 자발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에서 곧 시판될 쏘나타 1.6 터보는 당장 한국에 출시할 계획이 없다"면서 "중형 터보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내수시장에도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는 YF 쏘나타에 선보였던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개선품으로 예상된다.

중형 터보 엔진을 선보이기에 앞서 올해 안에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HEV)가 출시된다.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YF 쏘나타 하이브리드에 비해 모터 출력과 변속기 효율을 높인 게 특징이다. 현대차가 개발한 모터 일체형 고효율 6속 하이브리드 자동변속기는 기계식 오일펌프를 제거하고 고전압 전동식 오일펌프의 제어를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연비를 개선하는 한편 부드러운 변속감, 역동적인 주행감을 구현했다.

현대차는 2015년에 쏘나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로 또 한 번 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산차 중 최초의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될 이 차는 전기 충전으로 단거리를 커버하고, 배터리가 소진되면 엔진이 구동돼 주행거리를 늘린다. HEV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연료비가 크게 줄어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의택기자 ferrari5@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하나투어 고객님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여행'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 하나되는 지구세상

FTA민간대책위원회 "한중 FTA 협상 타결 환영"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무협 회장(왼쪽 두번째)이 '한중 FTA 타결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이하 FTA 민대위)는 한중 FTA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왼쪽부터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한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뉴질랜드·베트남도 협상 막바지

연내 타결 가능성 높아

한중 FTA가 체결된 가운데 후속 경제협력 상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7개 국가와 FTA를 협상하고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일 FTA 합류 여부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TPP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역을 만들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 참여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TPP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동아시아 대표 국가들의 경제 동맹인 한중일 FTA는 지난해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올해 9월 5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각 국가들은 포괄적 수준의 FTA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의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역사왜곡 논란으로 협상은 답보 상태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 회담이 성사되면서 한중일 FTA 추진이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중 FTA를 비롯해 4개의 FTA 협상이 타결되거나 서명을 마쳤다. 협상 중인 FTA는 7개, 협상을 검토 또는 준비 중인 FTA는 7개다.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있어 연내 타결 가능성이 크다. /장윤희기자 unique@

한중FTA 협상 고비때 **양국정상 합의내용**

단계	차수	일시(장소)	합의내용
1단계 협상	1차	2012.5.14 (베이징)	●협상운영세칙(TOR) 확정 ●무역협상위원회(TNC) 설치
	2차	2012.7.3~5 (제주도)	●상품분야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의 개시 ●서비스와 투자분야 작업반 개최
	3차	2012.8.22~24 (웨이하이)	●상품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 · 민감 · 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
	4차	2012.10.30~11.1 (경주)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논의 개시
	5차	2013.4.26~28 (하얼빈)	●서비스 · 투자 모델리티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
			한중 정상회담(2013.6)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6차	2013.7.2~4 (부산)	●상품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및 협정 대상 · 범위 등에 대해 상당한 진전
	7차	2013.9.3~5 (웨이팡)	●모델리티 합의로 1단계 협상 마무리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자유화 수준에 합의서비스/투자 및 규범분야 협정문 구성 요소에 합의
2단계 협상	8차	2013.11.18~22 (인천)	●상품은 양허 및 협정문 협상을 동시에 진행 ●원산지, 통관 등 여타 분야는 협정문안 합의
	9차	2014.1.6~10 (시안)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10차	2014.3.17~21 (일산)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한중 정상회담(2014.3) "한중 FTA 조기타결" 정상간 공감대 확인
	11차	2014.5.26~30 (쓰촨성)	●상품분야 2차 양허안 교환하고 양측 핵심 관심품목에 대해 2차 양허요구안 교환 ●서비스 분야는 1차 양허요구안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한중 정상회담(2014.7) "한중 FTA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 합의
	12차	2014.7.14~18 (대구)	●서비스 · 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출 (중국이 양자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합의한 최초 사례)
	13차	2014.9.22~26 (베이징)	●상품분야 집중 협의를 진행 패키지안 모색
			한중 정상급회담(2014.10) "한중 FTA 연내타결 목표" 재확인
	14차	2014.11.4~10 (베이징)	●잔여 쟁점 집중 논의
			한중 정상회담(2014.11) "한중FTA 실질적 타결" 선언

연합뉴스 자료/ 청와대

대기업·중기 "확실한 기회"

FTA 타결 14억 내수시장으로 활용 가능

국내 재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이하 민대위)는 10일 오후 '한중 FTA 타결 대국민 성명'을 내고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대위는 FTA 협상과 관련한 업계 의견 수렴부터 대정부 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민간 차원의 FTA 대책 마련을 위해 2006년 출범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의 4대 경제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됐다.

민대위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특히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업계는 한중 FTA를 14억 인구의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한중 FTA는 중국이 5대 교역 대상국 가운데 체결한 최초의 FTA로 중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 비해 협정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민대위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 인하가 원하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민대위 공동위원장 5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공동위원장들과의 일문일답.

-쌀 시장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 LCD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LCD는 현지화 산업 특성이 강하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도 늘리고 있어 전략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다. 쌀은 이미 관세화 쪽으로 협상 기류가 전환됐고 차 부분은 우리 기업도 예외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과거에 타결된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와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의 넓은 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됐다는 의미가 있고 동북아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내수시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 커졌다.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주어지던 중국 주재 기업인, 기업체 직원들의 비자가 2년으로 확대돼 투자, 교역이 증진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류 열풍, 한국 상품에 대해 중국의 선호도가 중소기업 제품까지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30개월 줄다리기' 협상 주역은?

대표단 이끈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한국과 중국이 '30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협상 주역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의 1차 공식 협상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5월 시작됐다. 한 해 동안 4차례 논의를 통해 기본적인 협상틀이 마련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는 협상이 본격화했다. 우태희(사진 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다. 우 실장은 뉴욕총영사관 상무관과 주 미국 공사참사관을 지내며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다. 통상협력정책관 등을 역임해 통상 실무에도 밝다.

그는 지난해 7차례의 공식협상 끝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과 이날까지 7차례에 걸친 2단계 협상까지 우리 협상단의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특히 협상 테이블에서 국제적 관례를 들어 농산물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시장 개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애썼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FTA 협상 타결의 주인공으로 꼽힌다. 이번 14차 장관급 협상에서 교착 국면에 빠져있던 상황을 윤 장관이 정무적 결단력으로 돌파했다는 평가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협상 대표단을 이끈 왕서우원 (오른쪽)중국 상무부 부장조리가 FTA 협상을 진두지휘했다. 이번 14차 공식협상에서 윤 장관과 대면한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막후에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미기자 seonmi@

전자업계 한중 FTA 채비 분주

13억 거대 통신시장 빗장 풀려 호재 판단

한중 FTA 타결로 13억 중국 거대시장의 빗장이 열렸다.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손익계산서를 다시 뽑고 주판알을 빠르게 튕기고 있다. 여기에 중국 FTA 역사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별도 협정문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내 통신 사업자들도 현지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 삼성·LG 등 현지화 총력전

삼성과 LG는 중국 공략을 위해 현지 정서에 맞춘 제품과 서비스 등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 무료로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잡지를 볼 수 있는 소비자 체험관인 '삼성 갤럭시 라이프 스토어'를 처음 오픈했다. 여기에 최근 새로운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 시리즈를 출시하며 중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국 최고 실력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을 올 들어서만 세 차례나 만났으며, 지난주에는 마카이 중국 부총리를 만나 중국 내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에 14개의 생산법인과 2개의 판매법인을 운영 중인 LG전자는 현지 특화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 중이다. 올해 초에는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49형에서 105형에 이르는 8종의 울트라HD TV 라인업을 선보였다. 중국 특화제품인 '꽌윈II 울트라HD TV'도 선보였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 제품도 현지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춰 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라이프 스토어 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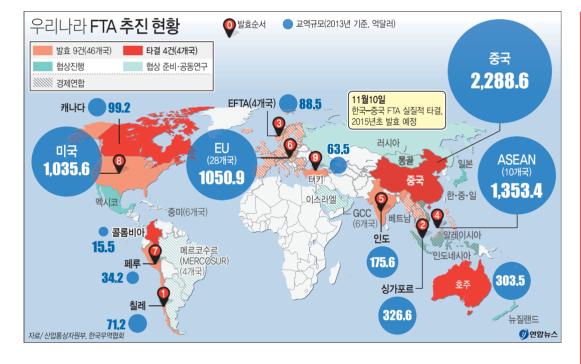
LG전자 중국 현지 특화 제품.

◆ 중국 통신 규제 낮아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 부문에서는 현지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완화가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한중 FTA 협상에서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은 서비스 장에서, 무역장벽 해소 등을 비롯한 통신서비스 관련 규범은 통신 장에서 각각 다뤄졌다.

특히 두 나라가 통신서비스 분야를 서비스 협상 내에서 별도로 다뤄 독립 챕터 형태의 협정문을 체결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현지 통신시장의 규제 장벽을 낮추는데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정문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규제 투명성 확보 등이 명시됐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자동차 분야 제외… '득보다 실' 우려 때문

국내 업체는 이미 중국 진출… FTA 이득 미미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이 이뤄졌으나 자동차 분야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업계의 판단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판매 체제를 구축한 터여서 수출 규모가 크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생산·판매한 차량은 157만여 대인데 비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4만8000여대에 불과하다.

중국이 현재 수입차에 매기는 관세율은 22.5%, 우리나라가 수입차에 물리는 관세율은 8%다.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에 수출 중인 현대차의 그랜저와 제네시스, 에쿠스 등 준대형·대형차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 중국 수출에 도움이 된다. 이에 비해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일부 버스만 수입되는 상황이다.

만약 FTA 타결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외국계 승용차가 한국에 본격 수입된다면 국내 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었으나, 업계의 요구로 그 같은 상황을 피하게 됐다.

자동차 부품은 관세철폐 기간이 20년 이내, 타이어는 15년 이내로 정해졌다. 득과 실을 동시에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의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부품기업은 합작법인 형태로 중국 사업을 영위하는 완성차와 달리 완전자회사 형태의 사업이 가능해 중국 사업의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업체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이를 가공해 완성품 형태로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으로의 부품 수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내 업계는 자동차 부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값싼 부품이 한국에 대거 수입되면 한국의 중소 부품업체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타이어업계도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타이어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이어는 전자제품 등과 달리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아 가격이 제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아직 중국산 제품과 국산 3사 제품에 품질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저가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 현재의 내수 시장 구도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기간산업 석유화학·철강 '희비'

10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소식에 대표적인 기간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의 희비가 엇갈렸다.

석유화학업계는 올해 1~5월 대중국 무역에서 석유제품 21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3.6%), 석유화학제품 87억 달러(15.6%)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생산된 석유제품의 18%, 석유화학제품의 45%가 중국으로 갈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FTA 타결로 석유화학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사라질 경우 가격 경쟁력이 한결 올라갈 전망이다.

중국은 그간 국산 업스트림 석유화학제품(에틸렌·벤젠 등 기초유분과 파라자일렌(PX) 등 중간원료)에 대해 2%, 다운스트림(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 제품에 5.5~6.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무역수지가 15억 달러 이상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철강업계는 중국의 저가 공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 1위의 철강생산 국가로 공급 과잉의 근원지인 중국이 FTA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강 유통망으로 보폭을 넓히면 국내 시장을 더욱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기술 향상을 이뤄가고 있다"며 "국내 업체는 기술 혁신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로 중국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

車부품·화장품주 훈풍 기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수혜업종 찾기에 분주하다.

증권가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란 측면에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점쳤다.

특히 관세율 문턱이 낮아지는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주와 중국 내 소비가 기대되는 음식료, 화장품 중심의 중국 내수주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이 유망할 전망"이라며 "수출 비중이 높고 관세 철폐 효과가 있는 자동차·부품 업종이 가장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중 FTA의 궁극적 수혜주는 단연 중국 내수주가 될 전망이다.

화장품 업종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이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다.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문화·콘텐츠, 운송 관련 분야에서 이번 FTA로 새로운 성장의 물꼬가 트일 기대감이 높아졌다.

/김현정기자 hjkim1@

ING 등 10개 생보사 징계 반발 소송 채비

issue&view
자살보험금 사태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당국 엄정대처·피해자들은 불매 운동

ING생명이 결국 금융당국의 '재해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타 해당 생보사들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엄정대처를 선언한데다 피해자들의 불매운동 전개등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6일 재해자살사망보험금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ING생명은 김앤장을 법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금융위원회의 징계 소명기간인 오는 27일 전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ING생명은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재가 합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소송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계획했던 특별현장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 까지 중단된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 특액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8월 말 정례회의에서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56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에 따른 사고사에 보험금을 내주는 재해사망보험의 경우 질병 등 일반 사망보다 보험지급금이 2~3배가량 많지만 가입자에게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

이어 금감원은 지난달 초 해당 상품을 판매한 12개의 생명보험사에게도 관련 민원을 조사해 통보하라고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생보협회와 해당 업체 4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2곳을 제외한 ING를 포함해 삼성·교보·한화·동부·신한·농협·동양·메트라이프·알리안츠생명 등 10개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금융당국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보험사 최고경영진(CEO) 초청 세미나에서 "애초 방침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일이며 약관에 나온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도 대책위를 결성,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피해자들은 지난 1일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생명보험 상품 불매운동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앞으로 생보사들의 채무부존재소송에 공동대응하고 불매운동의 전개, 금융당국의 제재 요구와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 "법원 판결 후에도 생보사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실채권비율 산업銀 가장 높아

국내은행의 3분기말 부실채권 비율은 소폭 떨어졌지만 그 규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및 향후 지도방향'에 따르면 3분기 말 부실채권비율은 1.72%로 지난 2분기 보다 0.01%p 내렸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규모는 26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이 23조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88.4%)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계여신은 2조9000억원(11.1%), 신용카드채권은 1000억원(0.5%)으로 집계됐다.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3분기 말 현재 5조6000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2000억원 줄었다.

은행별로 보면 KDB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8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수협은행 2.53%, 우리은행 2.36% 등이 뒤를 따랐다. 반면 신한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0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3분기 부실채권비율이 미국(2.24%, 6월말)이나 일본(1.9%, 3월 말) 등 주요국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지연 가능성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 부문 부실채권비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고 자율협약기업 등의 구조조정 진행에 따라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자산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전성분류 실태 점검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농구단 성적 따라 금리도 쑥" 우리은행은 10일 여자프로농구단의 시즌성적에 따라 우대금리와 경품을 제공하는 '위풍당당! 우리한새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3000억원 한도로 나온 이 상품은 소속 여자프로농구단인 한새농구단의 2014~2015 시즌승리와 3년 연속 통합우승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 제공

"은퇴준비, 부부가 함께"

신한銀, 은퇴교실 개최

신한은행은 10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은퇴준비를 원하는 부부 100쌍을 초대해 부부은퇴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4차례 진행된 부부은퇴교실은 은퇴에 관심이 많고,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은퇴교실은 '은퇴 후 행복한 삶'이란 주제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근태 교수의 강연과 은퇴상품, 은퇴자산관리솔루션 등에 대한 강의와 현장 상담 등을 통한 은퇴설계 체험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래설계 컨설턴트가 은퇴설계 시스템인 'S-미래설계'를 통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부은퇴교실은 은퇴교육부터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인 은퇴설계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고객들에게 은퇴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이달 기준금리 '동결' 전망

이주열 총재 발언 주목

오는 13일 개최되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올 들어 두 차례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데다 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달 한은 금통위에선 별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노아람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확대로 엔달러 환율이 115엔대로 상승했지만, 당장 이번 금통위에서는 추가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연내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올해 두 차례나 추가 인하했던 한은의 통화정책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11월 기준금리는 지금 수준(2.0%)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원엔 환율의 하락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달 금통위에선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최근 엔저 상황 등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만약 이 총재가 엔저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할 경우, 이는 금리 인하에 힘을 싣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권한욱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엔저 심화 문제와 유로지역 경기 불안 등에 따른 국내경기 하방위험 증대 등이 지적되면서 만장일치 동결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도농사랑가족' 상품, 출시 100일만에 1조 돌파 NH농협은행은 10일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을 연결해 주는 '도농사랑가족 통장, 예·적금'이 출시 100일 만에 18만좌,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제공

‘블랙프라이데이’ 특수 잡기

카드사, 배송비 할인·캐시백 등 이벤트 눈길

최근 카드사들이 오는 11월 28일 열리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직구족을 위해 해외 직접구매 맞춤형 카드부터 배송비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이벤트를 내걸어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해외 배송 대행업체인 몰테일과 손잡고 ‘몰테일 신한카드 샤인(Shine)’을 발급하고 있다. 이 카드는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몰테일 배송비를 회당 5000원씩, 최고 1만5000원까지 할인해 준다.

또 몰테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기본 0.5%에 1%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삼성카드는 해외 직구를 포함해 해외에서 사용시 국내 일반 가맹점보다 두 배 더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는 삼성카드 3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카드 3’는 일반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최대 1%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가 내놓은 ‘에브리몰카드’는 국내, 해외 구별 없이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 7~15%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아마존, 캡 등 최대 42개의 해외 유명 온라인 가맹점에서 할인가능하다.

하나SK카드의 ‘비바 G 플래티늄 체크카드’는 해외 이용금액의 1.5%를 캐시백해준다. 또 0.5%의 해외 이용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지난 5월 해외전용 상품인 ‘글로벌 언리미티드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이용액의 2%,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액의 0.5%를 무제한 캐시백해준다.

현대카드는 오는 16일까지 직구 사이트인 이베이츠에서 신규 가입 후 50달러 이상을 결제한 고객에게 15달러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해외 온라인 쇼핑 등에서 50달러 이상을 결제한 회원이 이벤트에 응모하면 배송비 10달러 할인 쿠폰도 준다.

농협카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랄프로렌, 아마존닷컴, 6PM 등 TOP 10 쇼핑몰에서 NH농협 마스타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최대 5만원을 캐시백해 준다. 또 연말까지 NH농협 마스타카드로 아이포터 배송비를 결제 시 10 달러 배송비 할인쿠폰이 발급된다.

KB국민카드는 해외직구족을 위해 배송과 구매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열었다.

특히 해외직접구매가 어려운 초보고객이라면, ‘이지(Easy) 해외쇼핑’ 서비스를 통해 배송비 사후 결제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14일까지 미화 기준 100 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4%까지 할인해 주며 ‘해외쇼핑 안심보험’ 무료제공과 배송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장애학생 지원위한 ‘드림스쿨’ 기증식 삼성화재는 제주 영송학교에서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드림스쿨’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드림스쿨은 장애학생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시설과 심리 치료실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삼성화재의 사회공헌사업이다.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이 제주 영송학교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삼성화재 제공

대신증권, 미국 국채 중개 서비스

대신증권은 미국 국채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미국 국채 중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미 국채 매매요청을 받아 홍콩시장을 통해 거래를 중개해준다.

현재 중개 가능한 상품은 미국국채10년물로서 만기일이 오는 2024년 8월 15일인 잔존연수 9년 10월의 이표채다.

미 국채는 이자 소득의 15.4%가 원천징수되며 그외 자본차익과 환차익은 비과세된다.

총 수수료는 0.5%, 최소 가입금액은 5000 달러(약 530만원)이다.

대신증권 전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성영 대신증권 채권상품팀장은 “이번 서비스는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 미국 국채를 국내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해외채권에 대한 라인업을 강화해 투자자들에 폭 넓은 투자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LIG손보 인수 위해 사외이사 거취주목

KB금융, 12일 임시이사회 개최

KB금융지주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사외이사들의 거취 표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오는 12일 서울 명동 본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윤종규 차기 회장 내정자의 보수 책정과 지배구조 개선태스크포스(TF) 승인 관련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LIG 손해보험 인수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외이사들의 거취 표명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현재 KB의 지배구조나 경영능력으로 LIG손보를 인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금융당국이 사외이사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는 이사회 직속으로 지배구조 개선 TF를 만들고 외부 컨설팅 회사에 관련 용역을 맡겨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컨설팅 결과를 보고받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가 LIG손보 인수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이사회에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경재, 김영진, 고승의 등 일부 사외이사들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다면 금융당국으로서도 한발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는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LIG손보 인수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올해 말까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LIG손보 측과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한편 윤 내정자의 보수는 행장겸직에도 회장 보수로만 책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백아란기자

삼성SDS 환급금 14조 어디로…

제일모직 공모 몰릴 듯

삼성SDS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환급되는 투자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렸다. 증시 전문가들은 제일모직 등 연말까지 남아있는 공모주 투자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10일 삼성SDS 상장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일반에 배정된 공모 물량은 121만9921주로, 금액은 총 1조1589억원어치(공모가 19만원)였다.

이가운데 공모금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14조원이 이날 고객들의 증권 계좌로 환급된다.

시장에서는 삼성SDS 청약에 워낙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으므로 이 가운데 대출을 낀 상당 부분이 은행권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봤다.

반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증시 계좌에 그대로 머물며 연말까지 상장 예정인 종목들의 공모를 노릴 것이란 관측도 많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상장한 공모주 45개 종목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지난 7일 현재 평균 39.27%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달 10~11일로 예정된 제일모직 일반 공모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제일모직의 공모 규모는 1조2937억원으로 공모액수만 보면 삼성SDS를 웃돈다.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은) 증시 전반이 부진한 상황인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공모주 투자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12월 중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제일모직 공모가 남아 있어 여기에 또 한 차례 참여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일모직이 삼성SDS만큼 주목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의 지배구조나 수익성 측면에서 제일모직이 삼성SDS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장의 관심도 적은 편이라 삼성SDS 공모에서 환급된 자금이 제일모직으로 얼마나 유입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김현정기자

아파트 분양시장 '삼성 앓이' 여전

건설사마다 삼성 임직원 잡기 마케팅 열 올려
일반 수요자에겐 '기대감'…계약률 높이기 효과

#지난 9월 이수건설이 경기도 평택에 공급한 '브라운스톤 험프리스'는 1·2순위 청약경쟁률이 0.14대 1에 그쳤지만 계약 한 달여 만에 85%의 판매율을 올렸다.

뒤늦게 실수요자들이 동·호수 선착순 계약에 나선 것도 있지만 지난달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7년 하반기까지 최첨단 반도체라인을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움직인 영향이 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의 '삼성앓이'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만 따라가면 돈이 보인다는 업계의 속설 때문이다. 삼성벨트에 들어선 기존 아파트는 물론, 신규분양 단지들도 인기를 끌면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마다 삼성 임직원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평택에 앞서 삼성벨트가 형성된 수원과 용인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가, 화성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삼성 모바일 부품연구소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상당수가 직장과 가까운 수원과 용인, 화성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수원 망포동에서 '힐스테이트 영통'을 공급하면서 삼성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가두홍보를 진행했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용인 서천지구 '힐스테이트 서천' 분양 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홍보전단과 함께 노트 1만부를 배포했다.

덕분에 '힐스테이트 영통'은 평균 1.76대 1로, '힐스테이트 서천'은 1.87대 1로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동에서 공

e편한세상 화성 조감도.

급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는 서초 삼성타운에서 도보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직주근접 아파트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삼성 직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1순위에서 71대 1, 최고 19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무난한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평택이 개발호재로 움직인 시장이라면 수원·화성·서초 등 이미 삼성타운이 형성된 지역은 직접적으로 임직원을 겨냥해 분양률을 끌어올리는 경우"라며 "일반 수요자에게는 기대감을, 삼성 직원들에게는 직주근접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임직원만 잡으면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분양하는 단지마다 이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림산업이 화성시 반월동에 선보일 'e편한세상 화성'은 단지 남측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게릴라성 '힐링 이벤트'를 진행했다.

총 2500명의 삼성 직원들에게 오렌지, 포춘쿠키, 자양강장제와 함께 홍보전단이 들어있는 힐링패키지를 전달해 단지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 아침에 출근하는 삼성 임직원들에게 이동식 카페에서 커피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대림산업 측은 "입지적으로 삼성 임직원 수요가 많아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사업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견본주택을 방문해 상담하겠다는 관심고객도 늘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수원 광교신도시 '힐스테이트 광교' 분양을 앞두고 '무빙카페'를 운영 중이다. 인근 삼성디지털시티 직원 동선에 맞춰 출·퇴근과 점심 시간에 커피 등의 음료를 나눠주며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국토부, 주요 건설현장 집중점검

국토교통부가 겨울철을 맞아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10일 동절기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감리업무 실태점검을 1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은 예년과 달리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실태까지 함께 점검함으로써 현장점검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등 전국 584개 현장에 대해 실시한다. 외부전문가(시민단체 3명 포함) 99명을 포함, 596명의 점검반을 구성했다. 굴착·발파공사, 가시설물공사, 터널공사 등의 동절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감리 실태점검을 한다. 최근 불거진 터널 락볼트 시공과 H형강 품질시험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두탁기자 kimdt@

한화건설-협력사 청계산 산행 한화건설 이근포(앞줄 가운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100여개 협력사 대표 등이 지난 주말 동반성장-무재해 결의를 위해 청계산을 오르고 있다. /한화건설 제공

SK건설 '행복나누기 자선 레이스' SK건설은 지난 9일 중앙서울마라톤 대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나누기 자선 레이스' 행사를 했다고 10일 전했다. '행복나누기 자선 레이스'는 SK건설 마라톤 동호회 회원과 임직원들이 기부 후원을 약속한 임직원 명단을 등에 붙이고 42.195km를 완주하면 약속했던 기부금이 조성되는 행사다. /SK건설 제공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 2006년 이후 최대

올 들어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늘면서 분양권 거래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2만8675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최대치로 LTV·DTI 대출규제가 풀렸던 7·24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양권 거래량은 8월과 9월 들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2만8244건과 2만8085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역시 최근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3455건을 기록하며 부동산시장 호황기였던 2006년과 2007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거래 증가와 함께 웃돈도 상승추세다. 2006년 판교신도시 이후 역대 최고 경쟁 경쟁률을 기록한 위례자이는 아직 분양권 전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금융위기로 신규분양이 줄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니즈가 커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신규 단지들이 입지·분양가 경쟁력까지 갖춘 경우가 많아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권 거래량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분양 대기 중인 아파트는 물론, 올 연말을 기준으로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단지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위례신도시에서 이달 '위례자연앤자이e편한세상'이 분양되고, 연말까지 '위례 아이파크2차',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위례 사랑으로 부영'의 전매제한이 풀린다.

/박선옥기자

해외 직구 인기 음료, 국내서 사세요

희귀했던 아몬드 음료, 코코넛 워터 등 판매

연세우유 '리얼아몬드', 해태음료 '썬키스트 캘리포니아 아몬실크', 정식품, '아몬드 퓨어 초코', 비타코코 '코코넛워터', 코카콜라의 '글라소 코코워터' (왼쪽부터)

온라인을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고 있다. 과거 이 같은 방식을 통해서만 즐길 수 있었던 해외 인기 식·음료들을 이제는 국내에서도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아몬드 음료는 물론 코코넛 워터 제품 등 직구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던 관련 제품들이 유통기한이나 복잡한 배송 절차 없이 만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일명 '아몬드 밀크'로 통하는 아몬드 음료는 우유와 두유를 일체 첨가하지 않고 아몬드만을 갈아 만든 음료를 가리킨다. 세계 최대 아몬드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우유의 대체 식품으로 두유의 점유율을 뛰어넘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음료 제품이었다.

이런 가운데 연세우유는 올해 캘리포니아산 생아몬드를 갈아 아몬드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은 '연세 리얼아몬드'를 선보였다. 또 삼육식품이 '아라몬드'를, 해태음료가 '썬키스트 캘리포니아 아몬실크'를, 정식품이 '아몬드 퓨어 초코'를, 남양유업이 '아몬드림'을 잇따라 새롭게 선보였다. 또 비락도 최근 '통째로 갈아 넣은 아몬드'를 출시하고 롯데 자이언츠 대표 치어리더 박기량을 홍보 모델로 발탁해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몬드 밀크만큼이나 해외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코코넛 워터도 국내에 상륙했다. 코코넛 워터는 일반적으로 운동 후 갈증해소를 위해 마시는 스포츠음료나 이온음료보다 당분은 낮으면서 수분 공급 효과가 뛰어나 차세대 천연 이온 음료로 불리는 제품이다. 특히 해외 유명 셀러브리티들과 스포츠 스타들이 즐겨 마시는 트렌디한 음료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국내서도 해외 직구로 코코넛 워터를 찾는 이들이 많았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미국 코코넛워터 브랜드인 '비타코코'가 국내에 상륙하며 국내 코코넛 워터 시장을 개척했다. 이어 올해는 코카콜라사가 코코넛 워터 '글라소 코코워터'를 선보이며 코코넛 열풍을 주도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강강술래, "초겨울 건강관리는 곰탕으로~"

1+1 행사 진행… 원기회복·면역력증진 도움
피로회복·노화방지 효과 킹스베리 증정도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본격적인 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할인과 증정행사를 벌인다.

전 매장에서는 오는 14일까지 기력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5팩·15인분)를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하며, 구매 때 소용량선물세트(350㎖·5팩·10인분·2만2500원)를 덤으로 준다.

또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좋은 명지대 산학협력단(BI기업 명지생활건강)이 만든 '명지 아로니아 킹스베리(1세트·23만원)'를 증정한다.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의 7배, 포도의 80배 이상 함유돼 있으며 색소·방부제·향료·설탕을 일체 넣지 않아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다.

한편 오는 14일까지 상계·홍대·시흥·늘봄농원점은 소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을 주문한 만큼 무료 증정한다.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메뉴 주문 때 한우불고기를 준다.(해피아워·정식류 제외)

이와 함께 전 매장에서는 와인(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1병을 시키면 결제 때 와인(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1병을 선물로 준다.

/정영일기자

"밸런타인 넘어선 빼빼로 데이"

남녀 선호 상품 갈려… 女 DIY, 男 완제품

유통업계가 빼빼로 데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대형마트는 밸런타인 데이·화이트 데이 등 다른 데이 행사의 효과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각 데이 마케팅 대표 품목들의 해당 기간 매출(D-6~D-Day, 7일간)을 평소(2주전, D-20~D-14, 7일간) 매출과 비교해 얼마나 큰 폭으로 매출이 늘어났는지를 집계했다.

그 결과, 빼빼로 데이에 주로 팔리는 '막대형 과자'의 3년간 평균 매출 신장률은 평소보다 84배 이상 높은 8308.0%로 나타났다.

밸런타인 데이의 '초콜릿'과 화이트 데이의 '캔디'는 각각 10배(919.1%), 8배(720.5%) 가량 매출이 늘어 데이 마케팅 효과가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빼빼로 데이 효과를 넘지는 못했다.

마트 측은 "빼빼로 데이에 주로 판매되는 막대형 과자의 경우 초콜릿이나 캔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물로써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빼빼로 데이 관련 상품 구매에서 남녀의 선호 상품이 갈렸다.

옥션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년보다 관련 상품 판매 증가폭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완제품(30%) 구매가 압도적이었던 반면, 여성은 DIY 초콜릿·빼빼로 만들기 상품(215%)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정기자 ksj0215@

본격적인 겨울 건강… 환절기 관리가 좌우

면역력 강화·피부와 눈 건강·혈당조절 도움주는 건강기능식 좋아

겨울을 알리는 절기인 입동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고 있다.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생활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추천하는 성분들을 추천한다.

◆면역력 강화에는

환절기 기온 변화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때 필요한 기능성 성분으로는 홍삼이 있다. 홍삼은 혈소판이 응집되는 것을 억제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알로에겔·클로렐라·당귀혼합 추출물 역시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이와 함께 가능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통해 저항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혈당조절에는

당뇨병 환자들은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낮아지면 추위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신체 활동량이 줄며 혈당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혈당이 상승하지 않도록 적절한 식이요법과 식후 걷기 정도의 운동은 필수다. 이와 함께 혈당조절을 돕는 구아바잎 추출물·귀리식이섬유·바나바잎추출물·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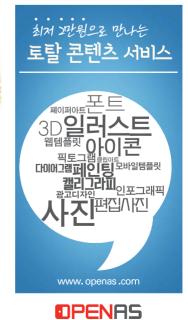
/정영일기자

롯데리아, 빼빼로데이 행사

롯데리아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치즈스틱 1+1' 이벤트를 벌인다. 이번 이벤트는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롯데리아의 대표 디저트인 치즈스틱(1900원)을 구매하면 같은 제품을 하나 더 증정하는 행사다.

단, 제휴카드와 롯데멤버스카드 할인은 불가능하며 홈서비스 고객들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빼빼로데이에도 치즈스틱 1+1 이벤트를 운영해 하루에 20만개 이상 판매를 기록했다.

/정영일기자

섹시한 '블랙', 귀여운 '원색'

기분따라 속옷 색 다르게… 누드톤 섹시미 발산

옷이 두껍고 칙칙해질수록 속옷은 화려해진다. 이너웨어 브랜드 파라 관계자는 "무채색이 주를 이루는 겨울철에는 화사한 란제리로 기분전환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며 섹시 또는 큐트 콘셉트에 맞는 란제리 컬러를 소개했다.

톡톡 튀는 비비드 컬러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이번 시즌 트렌드 색상으로 떠오른 오렌지 컬러는 생동감 넘치고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평소 화려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여성이라면 청량한 블루 컬러가 제격이다.

특별한 날 섹시한 여성으로 변신하고 싶다면 검정색을 선택한다.

모던하고 시크한 감성의 블랙 컬러는 여성 특유의 고혹적인 매력을 잘 살려준다. 특히 시스루 스타일로 은은하게 비치는 레이스 디자인이 더해지면 고급스러움까지 강조할 수 있다.

은근한 섹시미를 드러내고 싶은 여성에게는 누드 톤 란제리를 추천한다. 피부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은은한 매력을 어필하기에 좋다. 베이지 컬러 속옷은 특별한 장식 대신 잔잔한 자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제품이 한결 세련돼 보인다.

/박지원기자

겨울이면 빨개지는 볼 어떻게…

단순 수분 보충보단 피부 장벽 보호해야
피부 자극 줄이고 기능성 제품으로 관리

#. 직장인 최유정(27)씨는 겨울마다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는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데다, 찬바람에 두 볼이 울긋불긋 해지기 때문이다.

겨울철 많은 여성들이 최씨처럼 '건조함'과 '붉은기'로 고생한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씨에는 피부의 온도적응 능력이 떨어지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다"며 "이는 피부 건조증의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건조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8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수시로 덧발라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수분을 보충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피부과 전문의 안건영 원장은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은 피부 건강의 기본"이라며 "피부장벽이 개선되면 보습은 물론 건조함으로 인한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보습크림을 사용 한 후에는 오일이나 보습 밤을 덧바르면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준다. 클렌징 역시 중요하다.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의 강력한 세안은 자칫 피지막까지 제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듀이트리의 '7무 네이처 휘핑 클렌저'는 pH6.5 이하의 약산성 버블 클렌저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며, 설페이트·벤조페논 등 7가지 유해성분 무첨가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내외 온도 차이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거나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은기가 생기는 현상은 평소 자극을 최소화하고 붉은기 완화 제품을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나치게 각질을 제거하는 행동은 피한다. 겨울철 자주 찾는 사우나·찜질방도 모세혈관을 급속하게 팽창시키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한다. 간혹 빠른 진정효과를 기대하고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피부 혈관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화장품은 관련 임상 효과와 주요 성분을 꼼꼼히 따져본다. 최근에는 붉은기를 집중 케어하는 앰플이나 세럼류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지의 '레드-블레미쉬 수딩 앰플'(사진) 은 4주 활용 후 붉은기가 개선 임상 결과가 입증된 제품이다. 식물 유래 추출 성분을 23% 이상 고농도 함유해 자극 받은 피부는 물론 붉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속눈썹 연출 색조 메이크업 브랜드 메이블린 뉴욕은 2NE1 씨엘과 함께한 '메가 아이즈 마스카라' 광고 촬영 사진을 10일 공개했다. 씨엘은 아찔하고 풍성한 속눈썹 메이크업으로 특유의 섹시한 매력을 뽐냈다. 메가 아이즈는 메이블린 뉴욕 최초 듀오 브러시 제품으로 위·아래 속눈썹 모두 글래머러스하게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메이블린 뉴욕 제공

미국 내추럴 스킨케어 마이쉘, 국내 론칭

페이셜 부문 미국 판매 1위 내추럴 스킨케어 브랜드 마이쉘이 국내에 론칭했다.

2000년 설립된 마이쉘은 가장 효과적이면서 독성이 없는 스킨케어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회사 연구진 측은 피부에 가장 좋은 천연 성분을 연구하고 전 세계 대자연에서 발굴한 천혜의 성분들로 최적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이쉘은 자연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며 풍력 발전과 재생용지 사용 등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신세계 본점과 공식 홈페이지 숍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헤라, 윈터 에디션 '시리우스' 한정판

헤라는 겨울 밤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를 콘셉트로 한 '윈터 홀리데이 에디션 시리우스'를 한정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 '오토 젤 펜슬 라이너' '루즈 홀릭' '루즈 홀릭 글로우 리퀴드' 등이 각각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헤라 관계자는 "이번 시즌 피부는 얇고 은은하게, 눈매는 실버·골드 라이너로 반짝이게 연출한 뒤 레드·와인 계열 컬러로 입술에 포인트를 주는 화장이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주방용품, 프리미엄 제품으로 주부 공략

다양한 디자인에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더해 주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리미엄 주방 도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옥소 굿그립의 스테인리스 스틸 믹싱볼 3종 세트(사진)는 둥근 모양으로 제작돼 반죽을 하거나 음식을 버무릴 때 편리한 제품이다. 볼의 내부는 무광택 스테인리스 스틸로, 외부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됐다. 바닥 부분에 고무 소재로 이루어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장착돼 있으며,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하다.

제이미 올리버 사과 심지 제거기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부분을 사과 심지 부분을 향해 밀어 넣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사과 가운데 심지를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 우스토프의 쿨리나 필링 나이프는 새의 부리를 닮은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다루기 편하다. 과일과 채소의 껍질을 벗기거나 모양을 낼 때 유용하며 최고급 탄소강으로 제작돼 칼날의 강도가 뛰어나고 절삭력과 내구성도 우수하다.

락앤락의 투핸즈 살롱은 공정의 70~80%가 수작업이기 때문에 소량만 생산되는 고급 수제 주물 쿡웨어 라인이다. 고순도 알루미늄을 틀 속에 직접 부어 중력에 의해 형체를 잡고 자연냉각시키는 '그라비티 캐스트(중력주조) 공법'을 사용했다. 일반 코팅 보다 내마모성이 5배 뛰어난 '테플론 플래티넘 플러스 코팅'을 적용해 오랫동안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디저트 시장이나 라이프 스타일 시장이 뜨거운 반응을 얻는 이유도 사치스러운 느낌은 들지만 과하게 비싸지는 않아 소비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작은 사치' 현상은 여성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짜증나는 허리 목 디스크 질환!

이젠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명품 고주파로 치료 끝!

지난달 MBC '불만제로 UP'(이하 불만제로)에서는 '척추관절병원의 두 얼굴'이란 주제로 일부 척추병원들의 실태가 낱낱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날 불만제로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을 광고모델로 쓰는 척추관절병원의 신경 성형술의 실체와 실험군을 통한 무리한 시술의 후유증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다는 상업적으로 과도한 마케팅 광고 비용을 충원하기 위해 가격이 무리한 시술 방식을 반강제적으로 사용해 환자의 후유증이 커졌다는 사실과 이를 알고도 돈을 벌려는 의사들의 윤리와 양심이 여과없이 공개됐다.

디스크 중기에 약간의 협착 증상은 간단한 신경치료와 약물치료, 그리고 운동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지만 불만제로에 나온 병원들은 ▲꼬리뼈 신경 성형술 ▲꼬리뼈 레이저 내시경 치료술 ▲풍선 카테터 신경 성형술 ▲고주파열 치료술 등 가격이 비싼 치료를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권유하고 있었다. 즉 전문적인 의사들의 상업적인 횡포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자를 위해 치료에 중점을 둔 병원이 있다. 본 기자가 관련 업계를 수소문해 찾은 강남초이스병원(원장 조성태·사진)은 스타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스포츠 스타들까지 병원을 자주 찾고 있다.

강남초이스병원은 의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실제로 병원은 얼마 전 막을 내린 Mnet '댄싱9 시즌2'의 지정 병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무리한 수술이나 시술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수술 치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난 비싼 가격으로 꼬리뼈 신경 성형술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신경 치료술을 시행해왔다. 대학병원 교수 출신으로 구성된 의료진은 명예와 양심을 걸고 신뢰와 믿음의 정직한 치료를 제공한다. 이에 허리 디스크 증세를 보이던 '런닝맨' 출연자 7명 중 4명(김종국·개리·지석진·이광수)과 가수 휘성·장미화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입소문을 듣고 병원에 내원했다.

또 얼마 전에는 연예인 광고를 보고 유명 척추관절병원을 찾은 직장인 박모(62)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평소 허리가 불편하던 박씨는 등산을 한 후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근처에서 연예인을 홍보모델로 쓰는 병원을 방문했다. 박씨는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와 협착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과 풍선 카테터 신경 성형술이 동시에 시술됐다. 하지만 시술 후에 통증이 더욱 악화돼 결국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강남초이스병원을 찾았다.

조성태 강남초이스병원 원장은 진단 후 말기 디스크가 아닌 중기 디스크에 약간의 협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간단한 신경 주사치료와 약물치료를 실시했다. 조 원장이 시행한 시술은 고주파 특수 내시경 시술이다. 이 시술은 국소 마취 후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집어넣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자리로 위치시키고 고주파로 디스크를 수축·응고시키는 시술이다. 또 조 원장은 신경 주사를 통해 약물을 투여해 염증을 제거했다. 병원을 찾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도 이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시술은 부작용이 많은 기존 고주파 수핵 감압술이나 열 치료보다 진보된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부작용과 후유증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이며 병원을 찾은 환자들 대부분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조 원장은 "연예인과 스타들을 광고로 쓰면서 비용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환자들을 상대로 과잉 진료와 치료를 시행하는 상업화된 병원들로 인해 의사의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디스크 치료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병원과 의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대 02)875-2200·홍대 02)336-2200·여의도 02)786-2200·강서 02)2698-22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11일 '눈의 날'… 집중 후 일정시간 휴식 필요

'빼빼로 데이'인 11일은 사실 '눈의 날'이다. 대한안과학회는 1956년 11월 11일을 눈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눈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환경 변화로 노인성 안질환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 근시 비율도 늘고 있다. 눈 건강을 위한 행동이 절실한 때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 눈의 피로도를 줄여야 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주요 원인으로 이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눈에 휴식을 줘야 한다. 스마트폰은 20분 이상 집중해서 바라보지 말아야 하며 컴퓨터도 50분 사용하면 10분 정도 멀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은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데 인공 눈물 등을 통해 안구건조증 증상을 막아야 한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 자외선은 수정체에 영향을 줘 백내장 등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시력도 저하시킨다. 따라서 계절을 불문하고 선글라스를 챙기는 것이 좋으며 선글라스가 불편할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울러 눈 건강에 효과적인 루테인 등이 다량 함유된 브로콜리와 비타민A가 풍부한 토마토나 당근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눈 건강을 지키는 법이다. 반면 알코올과 흡연은 황반변성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눈을 의식적으로 자주 깜박이고 공부나 업무 중간중간 눈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눈을 감은 후 상하좌우로 눈동자를 움직이고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교차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황재용기자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왔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당일 컨디션을 조절하는 일만 남았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수시로 스트레칭하고 당 흡수해야

먼저 시험 전 긴장을 풀어야 한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우황청심원을 복용하는 것인데 우황청심원은 한방에서 사용하는 구급약으로 약재의 효능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자신의 체질과 맞지 않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능 당일 우황청심원 복용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2일 전부터 우황청심원을 미리 먹어보고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황청심원이 맞지 않는 수험생이라면 눈과 머리를 맑게 하는 감국차나 구기자차,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오미자차 등과 같은 한방차를 마시는 것이 긴장 완화와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또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필수다. 특히 시험장에 들어서기 전 스트레칭을 실시해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야 한다. 아울러 쉬는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점심시간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오후에도 스트레칭을 통해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만약 머리가 무겁다면 머리로 향하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머리가 맑아지게 하는 머리 지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우리의 뇌가 포도당과 산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쉬는 시간이 되면 초콜릿이나 사탕 등 가벼운 간식을 통해 부족한 당을 채워야 하며 특히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단기간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우유나 콩, 닭고기와 아몬드 등은 심신을 편안히 하고 잠을 유도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 점심식사로는 적당하지 않다. 식사는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하고 잠을 깨우는 홍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오후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우인 강남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센터 원장은 "앉아 있는 자세가 길기 때문에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야 긴장도 풀리고 집중력도 높아진다. 또 갑자기 생활패턴이나 음식을 바꾸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 드립니다!

한독, '질병 극복 위한 당찬 발걸음' 캠페인 실시

한독(회장 김영진)이 '세계 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당뇨병 극복을 위한 당찬 발걸음(이하 당당발걸음)' 캠페인을 실시한다.

만성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 환자는 신경 손상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다치기 쉽고 상처를 잘 인지하지 못해 부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뇨병의 흔한 합병증인 족부 궤양이 심해지면 발을 절단할 수도 있어 합병증 예방과 철저한 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한독은 당뇨병 치료제를 통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마련한 것이다.

신발은 걷기 운동을 통해 혈당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독은 총 100명의 당뇨병 환자에게 국내 최초로 당뇨병 전용 특허를 받은 신발을 선물할 계획이다.

또 캠페인에는 당뇨병 환자 본인이나 가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한독 홈페이지(www.handok.co.kr)나 우편(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한독빌딩 18층 당당발걸음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신발은 직원이 급여 나눔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지원된다.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신발을 신고 당뇨병 환자들이 희망을 향해 한 발자국씩 더 내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독은 '아마릴'과 '아마릴M', 그리고 대한민국 신약개발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아마릴멕스' 등의 당뇨병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방광암 '무수혈 인공방광수술' 화제

이대목동병원, 소장으로 방광 만들어 정상 소변

이대목동병원이 올해 단일 병원으로 국내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무수혈 인공방광수술'이 화제다.

인공방광수술은 방광암으로 방광을 제거해야 하는 환자의 소장을 이용해 방광을 만들어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기존의 소변 주머니를 신체 외부에 부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법이다.

이에 병원도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수혈 인공방광수술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51건의 수술을 진행해 국내에서 인공방광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병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 하는 수술은 무수혈 수술로 70대 고령 환자는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받을 수 있다.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인공방광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앞으로도 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양반다리 안 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술 좋아하는 중년 남성에게 많이 발병 '주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골반에서 연결되는 넓적다리 뼈의 머리 부위가 혈액과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받지 못해 썩는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과음이나 스테로이드제 복용, 고관절 탈구와 골절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생활 등으로 인해 음주 횟수가 많은 30~50대 연령층과 남성들에게서 이 질환이 자주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다리를 벌릴 때 사타구니에 통증이 생기며 양반다리가 어렵고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질환의 주요 증상이다. 또 땅을 디딜 때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양쪽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으면 이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초기에는 허리 디스크나 요통으로 오해해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런 치료 후에도 고관절과 엉덩이·허벅지로 통증이 이어지거나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차가운 우주·따뜻한 감성의 만남

10일 중국 상하이 페닌술라 호텔에서 열린 '인터스텔라' 아시아 기자회견 이후 한국 취재진을 위한 미니 인터뷰에 참석한 제작자 엠마 토머스, 배우 앤 해서웨이, 매튜 맥커너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왼쪽부터)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인터스텔라' 아시아 기자회견

놀란 감독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 이야기하고 싶었다"
맥커너히·해서웨이 "창의적인 감독과 함께 작업 행복"

영화 '인터스텔라'가 비수기로 얼어붙은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5일 개봉한 영화는 개봉 5일 만인 1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전국 21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 중이다. '인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주연 배우 매튜 맥커너히, 앤 해서웨이, 그리고 놀란 감독의 아내이자 제작자인 엠마 토머스를 10일 중국 상하이 페닌술라 호텔에서 열린 '인터스텔라' 아시아 기자회견장에서 만났다.

/상하이(중국)=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독보적인 감독이다. 블록버스터급 규모의 영화를 만들면서도 자신만의 주제를 확고하게 담아낸 작품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억과 무의식, 꿈과 현실, 선과 악, 법과 정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져왔다. '인터스텔라'에서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떠나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놀란 감독은 '인터스텔라'에 대해 "차가운 우주와 따뜻한 인간 감성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인지,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작품의 주제를 설명했다.

이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인생과 삶, 그리고 우주로 향하는 인간들의 삶은 평행선과도 같다"고 했다. 또한 "우주로 나간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 하지만 사실 지구에서도 죽음은 확실한 것이다. 다만 우주가 배경이 됐을 때 죽음이라는 주제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놀란 감독이 독보적인 또 다른 이유는 사실적인 연출을 고집한다는 데에 있다. 디지털과 CG가 대세인 지금 그는 여전히 대규모 세트를 짓고 필름으로 촬영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옥수수 밭을 위해서는 30만평 규모의 대지에서 실제로 옥수수를 키우기도 했다. 물리학자 킵 손이 제작자로 참여해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고증도 했다.

놀란 감독은 "영화 속에 나오는 과학 이론은 현재까지는 사실과 같다.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알지 못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름으로 촬영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색깔·이미지·해상도 측면에서 디지털보다 필름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더 좋은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필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중 로봇 캐릭터인 타스와 케이스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12 스페이스 오딧세이'에 나오는 로봇 모노리스에 대한 오마주"라며 "미니멀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고도의 지능을 지닌 로봇을 나타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국내 흥행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놀란 감독은 한국 내 흥행 요인에 대해 "영화가 '판타스틱'하기 때문"이라는 농담과 함께 "한국 관객의 과학적 소견이 높은 것 같다. 흥행 소식에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올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으로 오스카상을 거머쥔 매튜 맥커너히와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 출연했던 앤 해서웨이는 '인터스텔라'에서 놀란 감독과 함께 우주탐험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두 배우는 이번 영화에서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주탐험을 떠나는 조종사 쿠퍼와 브랜든 박사를 연기했다.

매튜 매커너히는 "놀란 감독과 작업하고 싶었고 캐릭터가 매력적이었다"고 밝혔다. 극중 캐릭터에 대해서는 "마음은 우주에 있지만 몸은 지구에 있는 인물"이라며 "꿈을 이루기 위해 우주로 떠나는 기쁨과 가장 사랑하는 딸을 지구에 남겨둬야 하는 슬픔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이 연기의 도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오스카상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오스카상을 받았다고 일하는 것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고 협업해서 현실적으로 영화를 촬영해 좋은 영화를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고 말했다.

앤 해서웨이는 "'인터스텔라'는 출연 제안을 받자마자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출연하겠다고 답했다"며 "브랜든 박사는 일반적인 영화와 달리 캐릭터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라서 좋았다"고 말했다. 10년 전 '프린세스 다이어리'로 한국을 한 차례 방문했던 그는 이날 한국 취재진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매우 다르다. 그때보다 더 친절해졌고 감사할 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유희열, 15년 만에 '서울의 밤'

토이 7집 '다 카포' 재킷 공개… 오는 18일 컴백

가수 유희열(사진)의 원맨 프로젝트 토이의 컴백이 임박했다.

유희열의 소속사 안테나뮤직은 오는 18일 발매 예정인 토이 정규 7집 '다 카포' 재킷 이미지를 10일 공개했다.

'다 카포'는 '처음으로 돌아가 연주하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다. 유희열은 이번 앨범 타이틀을 이같이 정하고 토이로 음악을 시작했던 처음 순간의 마음으로 돌아가 신선한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이번 앨범에는 성시경·이적 등 앞서 토이와 함께 작업했던 가수는 물론 김동률·다이나믹 듀오·선우정아·권진아·김예림·빈지노·이수현(악동뮤지션)·자이언티·크러쉬 등 새로운 아티스트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 재킷 사진은 서울의 밤을 주제로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와 인적이 드문 다리 밑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이는 지난 1999년 발매된 토이 4집 '어 나이트 인 서울'과 같은 콘셉트다. 유희열은 당시 촬영지였던 서울 명동·용산·삼각지·양화대교·상도터널·한강대교 등지를 돌며 서울의 풍경을 담았다.

소속사는 "4집 발매 후 15년이 지난 지금 유희열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밤을 앨범에 똑같이 담아 흐른 세월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가수 성시경이 부른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세 사람' 역시 앨범 콘셉트와 같은 맥락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01년 발매된 5집 '페르마타'의 타이틀곡 '좋은사람'의 10년 후 버전이다. 성시경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결혼을 앞둔 두 친구의 행복을 지켜봐야하는 한 남자의 안타까운 감정을 노래했다.

/김지민기자

'사뿐사뿐' 캣우먼으로 변신한 AOA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 무브홀에서 열린 AOA의 두번째 미니앨범 '사뿐사뿐' 쇼케이스.. /손진영기자 son@

미니 2집 발표… '짧은치마' '단발머리' 이어 흥행 3연타 노려

7인조 걸그룹 AOA가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AOA는 1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무브홀에서 두 번째 미니앨범 '사뿐사뿐' 쇼케이스를 열고 새 타이틀곡을 공개했다.

이번 앨범에서 캣우먼으로 변신한 AOA는 '사뿐사뿐' 무대에 앞서 패션쇼 런웨이 무대를 연상시키는 워킹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멤버 초아는 "안무 연습을 주로 하다 보니 '가수 워킹'이 몸에 배어 있었다. 오늘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짧은 시간이나마 톱모델분들에게 캣워크(모델 워킹)를 배웠다"고 말했다.

'사뿐사뿐'에 대해 멤버 유나는 "고양이의 걸음걸이를 묘사한 의태어로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매혹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여자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초아는 "캣우먼을 조금 더 요염하게 표현하기 위해 뮤지컬 '캣츠'도 보고 SBS '동물농장'에 나오는 고양이를 보며 몸동작 등을 연구했다"며 이번 앨범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밝혔다.

섹시 콘셉트 걸그룹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최근 가요계에서 AOA는 지난 1월 '짧은치마'와 지난 6월 '단발머리'로 2연타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2012년 8인조 걸밴드로 데뷔한 AOA는 댄스곡 활동을 시작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드럼을 담당했던 멤버 유경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초아는 "우리는 '트랜스포머' 그룹"이라며 언제든 그룹 형태가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사실 데뷔 초에는 잘 안 됐다. 관심받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다"며 "댄스곡으로 AOA를 더 많이 알리고 난 뒤 더 다양한 음악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AOA는 '사뿐사뿐'으로 앞선 히트곡의 흥행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이번에도 히트곡 제조기 용감한 형제와 손을 잡은 AOA는 "이번이 용감한형제 프로듀서와 세 번째 작업"이라며 "이번엔 궁합이 더 잘 맞았고 더 자신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초아는 "올해 초 '짧은치마'로 예상치 못하게 사랑을 많이 받아 처음으로 1위를 했다"며 "이번에는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 한 번 더 1위에 도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앨범에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감성 발라드 '타임', 팬송 'AOA', '여자사용법' 등 총 6곡이 수록돼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카라 전 멤버 니콜 솔로 복귀 임박

19일 첫 미니 앨범 발매·쇼케이스 개최
11일부터 티저 영상 차례로 공개할 듯

걸그룹 카라의 전 멤버 니콜의 컴백이 임박했다.

니콜의 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는 10일 오전 0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니콜의 첫 번째 솔로 미니앨범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니콜은 옆모습 일부만 드러냈다. 또 팔과 다리에는 영어·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와 기호·수식 등의 그림이 암호처럼 적혀 있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소속사에 따르면 니콜은 오는 19일 미니 1집 발매와 쇼케이스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속사는 이에 앞서 11일과 오는 14일에 티저 영상을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다.

니콜은 카라 탈퇴 후 미국 뉴욕 등지에서 솔로 활동 준비를 해왔다. 카라 활동 당시 히트곡 '미스터' '루팡' '점핑' 등을 만든 작곡팀 스윗튠과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신곡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민기자

슈퍼주니어 규현, 가을남자 품다

첫 솔로 앨범 '광화문에서' 발표

그룹 슈퍼주니어의 규현(사진)이 솔로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규현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첫 솔로 미니앨범 '광화문에서'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13일 오전 0시 공개될 예정인 이번 앨범에는 총 7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을 작곡한 켄지를 비롯한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 앨범이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와 작사가 양재선은 수록곡 '이터널 선샤인'을, 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엽과 에코브릿지가 의기투합한 작곡팀 허니듀오는 '뒷모습이 참 예뻤구나'를 만들었다. 히트곡 '두 사람' '좋을텐데' 등을 탄생시킨 작곡가 윤영준과 작사가 양재선은 '사랑이 숨긴 말들'로 앨범에 완성도를 더했다.

또 규현이 지난 9월 개최된 '슈퍼쇼6' 서울 공연에서 첫 선을 보인 자작곡 '나의 생각, 너의 기억'도 포함돼 있다. 선배 가수 이문세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깊은 밤을 날아서'도 수록돼 있어 규현의 다양한 목소리와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규현은 솔로 앨범 발매와 함께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지민기자

"THE BEST SHOW EVER!"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 래리 킹, CNN -

'태양의 서커스 공동
창립자의 동화적인 걸작'

- 뉴욕타임즈 -

2014.11.12 GRAND OPEN

잠실종합운동장 화이트빅탑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옥션티켓 1566-1369

클래식 없는 '내일도 칸타빌레'

판타지 없는 '아이언맨'

정체불명 기승전 '로맨스' 드라마

"성공 요인은 명확한 메시지 전달"… 논란

KBS2 월화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와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이 정체성을 잃었다. '내일도 칸타빌레'에서는 클래식이 사라졌고 '아이언맨'에는 판타지가 없다. 두 작품은 로맨스에 치중하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도 칸타빌레'는 원작 일본 만화·동명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와 비교되며 방영 전부터 화제였다. 그러나 8회까지 시청률 5~6%(닐슨코리아·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고전 중이다. 음악드라마에서 클래식이 사라졌고 주인공 설내일(심은경)이 겉돈다는 점이 원인이다.

설내일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혼자 다른 세상에 와 있다. 그의 판타지적인 행동은 정상적인 다른 캐릭터와 동떨어져 있다.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던 심은경을 연기력 논란에 휩싸이게 했다.

특히 작품은 클래식을 다루는 드라마로서 큰 기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설내일은 피아노 대신 차유진(주원)의 뒤를 따라다니고 이윤후(박보검)와 삼각 로맨스에 빠져 있다. 오케스트라 공연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사랑에 기울었다.

'아이언맨'의 경우 "주홍빈(이동욱)이 지구를 구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있다. 판타지 장르가 판타지답지 않게 애매모호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주인공 주홍빈은 분노하면 칼이 몸 밖으로 나오는 인물이다. 온몸에 돋은 칼로 고층 빌딩을 오르고 힘을 주면 손끝 하나로도 차량을 들어올릴 수 있다. 그의 초인적인 행동과 변신, 이를 위로하는 손세동(신세경)의 따뜻한 심성이 매회 반복된다. 뿐만 아니라 옛 연인 김태희(한은정)가 나타나면서 로맨스가 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언맨'이 다른 작품과 차별화되는 요소는 '칼'이었다. 그러나 칼이 '분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고 강렬한 인상도 주지 못한다는 평가다. 작품은 오는 19일 후속작 '왕의 얼굴'이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회 줄어든 18회로 조기 종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미생'의 경우 메시지가 명확하다"며 "로맨스와 감성에 호소하는 콘텐츠는 경쟁력을 잃었다. 집약된 내용으로 확실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박신혜 韓 최초 비자 모델

아시아 전역 동시 방영… 한류 퀸 입증

배우 박신혜(사진)가 글로벌 전자결제 네트워크 비자(Visa)의 새 얼굴이 됐다.

앞서 비자는 캐서린 제타존스·리차드 기어, 성룡·장쯔이 등 유명 할리우드·아시아 스타, 지단·파울로 로시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을 TV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박신혜는 대한민국 최초로 비자 모델에 발탁돼 그의 해외 인지도를 입증했다.

비자는 박신혜를 활용한 광고를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동시 방영할 계획이다.

새 TV 광고는 해외 직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겪을 법한 안전한 결제 여부, 배송 걱정을 비자 카드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이안 제이미슨 비자코리아 대표는 "비자가 박신혜와 함께 온라인 쇼핑을 주제로 새로운 광고를 시작하게 됐다"며 "특히 주요 아시아 시장에서 첫 한국인 한류스타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남이시네요' '상속자들'을 연달아 히트시킨 박신혜는 2년 연속 한국 여배우 최초로 아시아 투어를 열며 한류 스타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박신혜의 비자 광고는 오는 12일부터 TV·인터넷으로 방영된다. 그는 현재 SBS 새 수목드라마 '피노키오' 촬영에 한창이다. /전효진기자

'인형의 집' 한·미·중 동시 방영

웹드라마 최초 소셜 펀딩 진행

웹드라마 '인형의 집'(사진)이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동시 방영될 예정이다.

오는 16일 자정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독점 방송되는 '인형의 집'은 예고편만으로도 해외 판권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네이버, 미국의 드라마피버, 중국의 PPTV에서 동시 방영이 확정됐다. 웹드라마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평가다.

작품에는 영화 '명왕성'과 KBS1 '대왕의 꿈', 웹드라마 '후유증'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선주아와 연극 '썸걸즈' '블랙베리포먼스' '왕세자 실종사건'에서 활약한 태국희, 그룹 제국의 아이들 정희철 등이 출연한다.

특히 '인형의 집'은 웹드라마 최초로 소셜 펀딩에도 도전한다. 웹 환경에 맞게 누리꾼들이 후원하고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소셜 펀딩은 펀딩21 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3만원 이상 후원 시 엔딩 크레디트에 총 12회(전회) 이름이 올라가며 5만원 이상을 후원하면 이와 함께 특별시사회에도 초대된다.

'인형의 집'은 '후유증' '그날의 생존자들'로 유명한 웹툰 작가 김선권의 원안을 바탕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긴박감과 재미를 동시에 줄 공포·스릴러다. 삐뚤어진 모성애와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담는다. /전효진기자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 꿈꾼다

12월 개봉하는 영화 '국제시장'

5년 만에 메가폰 잡은 '해운대' 윤제균 감독 "부담 없다면 거짓말… 사명감·진심 담았죠"

영화 '국제시장'의 연출을 맡은 윤제균 감독(왼쪽부터)과 배우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정진영, 장영남, 김슬기, 라미란 등은 10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부산의 재래시장인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한 편이 12월 극장가에 감동과 눈물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1100만 관객을 동원한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이 5년 만의 신작 '국제시장'을 내놨다. 배우 황정민을 필두로 김윤진·오달수·정진영·장영남·라미란·김슬기 등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들이 모두 모였다.

윤제균 감독과 배우들은 10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국제시장' 제작발표회를 열어 영화 소개와 촬영 중 있었던 일화를 공개했다.

윤제균 감독은 "처음부터 시장을 배경으로 할 생각이었다. 부산은 그 다음으로 한 고민이었다. 지금 사는 곳이기도 하고 어렸을 적부터 잘 알고 있던 곳이다. 국제시장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만들었던 시장이다. 지금도 마트나 편의점과는 다른 시장만의 느낌이 살아 있다"고 국제시장을 무대로 삼은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시장'은 지금을 살고 있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다. 주인공 덕수(황정민)의 일대기를 통해 가장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영화를 '대한민국의 역사'로 표현한 김윤진의 말처럼 '국제시장'은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를 연상케 한다.

덕수의 부인인 영자 역을 맡은 김윤진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이야기라 자연스레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받고 편하게 살고 있구나'를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촬영 소감을 전했다.

출연 배우부터 촬영·조명·음악·의상 등 영화를 만드는 제작진이 최강의 팀을 꾸렸다는 평가다. 독일, 체코, 태국 등의 로케이션 촬영도 많았다. 윤제균 감독은 "이번 작품을 하면서 인복이 참 많았다고 생각한다. 처음 시나리오를 썼을 때부터 생각했던 배우들이 모두 흔쾌히 참여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나 오랜만의 영화인 만큼 부담도 크다. '해운대'의 대박 이후 5년 만에 다시 연출을 맡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촬영 기간도 길었던 만큼 예산도 '해운대'보다 크게 늘었다.

윤 감독은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예산 역시 '해운대'보다 많이 들었다. 약 140억원, 마케팅 비용을 합치면 180억원은 넘을 것 같다. 남의 돈을 투자 받아 영화를 만드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는 감독은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된다는 사명감이 우선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만든 영화다. 그분들한테 실망을 드리면 안된다. 나와 배우를 찾는 젊은 관객들에게도 실망을 주면 안된다. 머리 쓰지 않고 가슴으로 만들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개봉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영화 '빅매치'의 이성민·이정재.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김대명.

'미생' 이성민·김대명, 영화서도 열연

'빅매치' 남남케미 – '뷰티 인사이드' 20인 1역

tvN 금토드라마 '미생'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 이성민, 김대명이 영화에서도 맹활약 중이다.

이성민은 오는 27일 개봉을 확정한 영화 '빅매치'로 스크린을 찾는다. '빅매치'는 도심 전체를 무대로 천재 악당으로부터 형을 구하기 위한 익호(이정재)의 무한질주를 그린 오락액션 영화. 이성민은 최익호의 형 최영호 역을 맡았다.

연극과 영화 등 다방면에서 오랜 시간 내공 있는 연기력을 쌓아온 이성민은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임시완)의 상사 오상식 과장 역을 맡아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의 멘토로 사랑 받고 있다. '빅매치'에서는 동생 최익호를 스타 파이터로 키운 열혈 코치로 또 다른 멘토로 변신해 눈길을 끈다.

이번 작품에서 이성민은 이정재와 처음 호흡을 맞췄다.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로 완벽하게 몰입해 뜨거운 형제애를 과시했다는 후문이다. '미생'의 임시완과의 호흡에 버금가는 '남남케미'로 기대를 갖게 한다.

'미생'에서 김동식 대리로 눈도장을 찍은 김대명은 최근 20인 1역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첫 촬영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 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뷰티 인사이드'의 크랭크인 현장에서 김대명은 30대의 평범한 남자 우진을 연기했다. 극중 우진은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독특한 인물. 김대명은 자신만의 우진을 코믹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소화해냈다.

촬영을 마친 뒤 김대명은 "수십 명의 우진 중 관객들과 처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우진'을 맡아 무척 떨리고 설렌다.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뷰티 인사이드'는 내년 상반기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작 '반짝반짝 두근두근'

한상진·이청아·박보검·김수안 캐스팅, 13일 공개

배우 한상진, 이청아, 박보검, 김수안이 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작 '반짝반짝 두근두근'(감독 김태균)에 캐스팅됐다.

'반짝반짝 두근두근'은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하는 단편영화다.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영화로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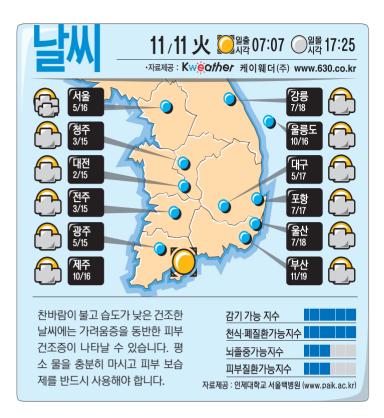
영화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 온유와 아빠 윤, 귀가 들리지 않는 은수와 준우의 이야기를 그린다. 자동차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소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용인 메가박스 드라이브M에서 첫 촬영을 진행했다.

아빠 윤 역은 배우 한상진이, 온유 역에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아역배우 김수안이 캐스팅됐다. 이청아는 은수 역을, 박보검은 준우 역을 맡아 호흡을 맞췄다.

한상진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아빠처럼 김수안을 챙겼다. 이청아, 박보검은 각각 영화와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촬영에 참여했다. 드라마에서 이미 호흡을 맞춰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마쳤다.

'반짝반짝 두근두근'은 배리어프리버전을 위한 화면해설 작업을 거쳐 오는 13일 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작으로 첫 공개된다.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반짝반짝 두근두근'과 폐막작 '군도: 민란의 시대'를 포함한 총 9편이 상영된다.

/장병호기자

한상진·이청아·김수안·박보검(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		4	
						9		
6	1	4		3				
	6				2	7		5
7			3		6			4
5		2	1				6	
				7		1	8	6
		5						
	2		8			3		

		7	8					
		8	1			3		
	2			3	9			
	3			6	5			4
		2		4		5		
	6		7	1			3	
			5	8			6	
		4			1	7		
					7	2		

스도쿠 정답

3	9	7	5	2	8	6	4	1
2	5	8	4	6	1	9	7	3
6	1	4	7	3	9	5	2	8
4	6	1	9	8	2	7	3	5
7	8	9	3	5	6	2	1	4
5	3	2	1	4	7	8	6	9
9	4	3	2	7	5	1	8	6
8	7	5	6	1	3	4	9	2
1	2	6	8	9	4	3	5	7

3	9	7	8	5	6	4	2	1
6	4	8	1	7	2	3	9	5
5	2	1	4	3	9	6	7	8
1	3	9	2	6	5	8	4	7
7	8	2	9	4	3	5	1	6
4	6	5	7	1	8	9	3	2
2	7	3	5	8	4	1	6	9
9	5	4	6	2	1	7	8	3
8	1	6	3	9	7	2	5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겨울철 혈액순환이 걱정될 때 먹는 음식들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수족냉증 등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겨울이 괴롭다. 날씨가 추워지면 즉각적으로 몸에 반응이 오기 때문이다. 손발 등 신체 일부분이 심하게 시리고 심한 경우 저리거나 찌릿거려서 자다 깨는 경우도 생긴다. 다크서클이 심해지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게 된다.

중년에 들어서면 혈액순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게 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진단받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두 상황 모두 혈관에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그대로 방치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쉽다. 그로 인해 국소 마비부터 뇌졸중(중풍)·심근경색·심부전·심장동맥질환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이를 '어혈'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흔히 죽은 피라고 부르는데 혈액 내 노폐물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어혈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제대로 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위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혈을 없애고 혈액 흐름을 좋게 하는 음식들을 먹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혈을 없애는 효능이 뛰어난 본초에는 당귀가 있다.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음인들에게 잘 맞는다. 물 1ℓ에 당귀 30g을 넣고 센 불로 한번 끓인 후 약한 불로 줄여 물이 반이 될 때까지 달이면 된다. 전형적인 한약재의 향이 나는데 대추와 함께 끓여 먹으면 그 맛이 더 좋다.

몸에 열이 많은 양인은 당귀보다는 울금이 잘 맞는다. 주로 환으로 많이 먹는다.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권장 섭취량의 반 정도만 먹는 게 좋다. 몸에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조금씩 늘려먹는 게 안전하다.

어혈 제거 음식을 먹을 때에는 피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뛰어난 미역을 자주 먹어준다. 어혈을 풀어주는 것이 농경지의 수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피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그 수로에 공급하는 물의 양을 늘리는 과정이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땅이 비옥해지는 것처럼 건강이 좋아진다. 몸이 찬 음인의 경우 닭고기나 소고기를 곁들여서 미역을 먹는 게 좋고, 몸이 뜨거운 양인의 경우는 해물을 넣어 함께 먹으면 좋다. /김소형 본초학 박사(김소형 한의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노후대책 없는데 사업해도 될까요
적은 수입이지만 임대업이 나을듯

Q 복바치 남자 39년 8월 25일 점심

늙어 연금 받는 것도 없이 그동안 벌어먹고 사는 것에 그쳐서 노후대책이 없습니다. 운전수로 평생을 지내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올해 76살이고 8월 25일이 제생일 입니다. 오퍼상을 하는 친구의 권유로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 잡혀 돈을 마련 후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되팔아 이득을 보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진이 좋은 장사이지만 제가 사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0% 되는 사업이라도 막상 해보면 성공률이 얼마 안 되는 현실이라 걱정 입니다. 놀고 있을 수는 없고요. 부탁드립니다.

A 친한 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지면 적당히 나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할 땐 그렇게 친하던 사람끼리 철천지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돈이라는 재산상 피해가 직접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 태어난 날(生日柱)에 상관(傷官:직업인 관성을 침)의 기세가 강하여 재능을 과신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면 매우 잘하지만 구덕(口德)의 흠에서 안목이 폭넓지 못하여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분목(焚木)으로 나이가 들었어도 학문에 대한 갈증을 의미하고 기예방면에 소질이 있고 지지(地支:사주뿌리)인 오화(午火)가 정재(正財)와 합하고 있어서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자칫 인색한 성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2013~2017년 까지 재물 운은 충살을 맞고 있으며 하향 길을 가고 있으므로 사업을 하면 2014년인 올해 대운에서 재물이 물에 떠내려가는 형상이 되는데 인정이 일어나서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는 성격도 사주에 기인한 것이겠습니다.

문서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편인격(偏印格)으로 문서와 관계 된 일이기는 하겠으나 대출을 받는 것은 재극인(財剋印:재성이 인성을 침)이 되므로 군겁쟁재(群劫爭財:재물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이 서로 갖으려고 싸움)가 일어나고 이는 한편으로 년지(年支)에서 귀문 살이 동하여 이상하리만치 비정상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셈이므로 그 동안의 경륜과 지식을 이용하여 글을 써주고 임대업 쪽으로 진로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벌지 못하더라도 노후의 삶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11일 (음 (윤)9월 19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옥죄던 걱정은 풀린다. **60년생**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72년생** 쇼크 먹은 사람은 서서히 깨어난다. **84년생** 늑대 같은 야성이 필요한 날~.

49년생 자녀에 희소식 있으니 기대하라. **61년생** 자영업자는 주문 쇄도한다. **73년생** 충고는 적극 수용할 것. **85년생** 세상이 허락한 것만 살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50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바쁘다. **62년생** 처음 마음먹은대로 하라. **74년생** 적성에 맞는 새 일감이 생긴다. **86년생** 새 일에 성공하려면 집요하게 파헤쳐라.

51년생 발칵 뒤집힌 일은 잠잠~. **63년생** 욕심 부리면 도마 위에 오른다. **75년생** 건의 사항은 절차를 밟아서 할 것. **87년생** 통하는 이성과 마주앉아 떨린다.

52년생 막혔던 일은 돌파구 열린다. **64년생** 설득력 없는 계획은 접어라. **76년생** 자영업자는 위험한 상황서 벗어난다. **88년생** 마음먹었으면 집요하게 진행할 것.

53년생 도와줄 땐 화끈하게 밀어주라. **65년생** 문서 일은 막판에 무산된다. **77년생**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은 인기 폭발~. **89년생** 마음먹고 도전할 일이 생긴다.

42년생 환자는 병세가 호전된다. **54년생** 뭐든 삐딱한 이웃 때문에 부글부글~. **66년생** 정면 충돌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78년생** 희망의 메시지가 문 앞에 당도~.

43년생 위상 흔들 일은 삼가라. **55년생** 불의면 엄정대응해야 손해가 없다. **67년생** 자영업자는 생각도 못한 대박에 야호~. **79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44년생 그동안 베푼 보람 느낀다. **56년생** 충고 할 때도 현실을 고려할 것. **68년생**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한 격이다. **80년생** 상사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신경 써라.

45년생 묵묵히 제 몫 하는 자녀가 고맙구나. **57년생** 갑자기 공돈이 생긴다. **69년생** 판도가 바뀌었으면 처신도 달리 할 것. **81년생** 아픈 만큼 얻을 것은 얻는다.

46년생 작은 경사에 한턱 쏜다. **58년생** 새 일은 부담을 덜어버리는 게 우선~. **70년생** 좋은 일 끝에 경사가 꼬리를 문다. **82년생** 불씨부터 살린 후 다음 생각할 것.

47년생 시대 흐름을 잘 읽어라. **59년생** 주도권은 내줘도 마음은 편안하다. **71년생** 좋은 일 뒤 동티를 경계하라. **83년생** 직장인은 조직서 목소리 커진다.

9회말 2아웃 최형우의 끝내기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넥센에 2-1 역전승

'야구는 9회 말 2아웃까지 모른다'고 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진땀 나는 명승부가 9회 말 2아웃 상황에서 터진 최형우(사진)의 끝내기로 삼성이 2-1로 승리했다.

4차전까지 2승을 나란히 가져간 두 팀은 10일 잠실구장에서 선발 투수들의 빛나는 호투에 힘입어 한 점 차 극적인 승부를 연출했다. 선취점을 올린 넥센은 필승 조를 투입했으나 1점을 지켜내지 못한 채 쓰라린 패배를 맛봐야 했다.

넥센의 선발 헨리 소사는 6⅓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으로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다. 지난 5일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2⅔이닝 6피안타 6실점으로 부진했던 소사는 닷새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돌아왔다. 총 투구수 111개 중 스트라이크 73개를 던지며 볼넷 3개 탈삼진 7개를 기록했다.

소사는 7회까지 마운드에 올랐다. 투구 수가 100개를 넘어갔지만 시속 150㎞에 가까운 직구는 여전히 위력적이었다. 1아웃 상황에서 대타 진갑용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소사는 필승조 조상우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삼성 선발 벤델 헐크의 투구도 빛났다.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경기였다. 벤델 헐크는 7이닝 5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최고 시속 153㎞의 강속구와 슬라이더, 커브를 돌려가며 넥센의 강타선을 막아냈다.

10타자 연속 범타 행진을 이어간 벤델 헐크는 6회 박헌도에게 좌전안타를 맞은 후 박동원에게 희생번트를 내줘 1사 2루 위기에 몰렸다. 이어 서건창에게 우전 적시타를 허용해 선취점을 내줬다. 삼성은 8회부터 벤델 헐크를 내리고 안지만을 투입했다.

삼성 타선은 8회 무사 만루 기회에서 마운드에 오른 넥센의 마무리 손승락에 무릎을 꿇었다. 경기가 기운 듯했으나 9회 말 삼성 타자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경기를 뒤집었다. 선두 타자로 나선 김상수가 유격수 앞 땅볼로 아웃 당했지만 나바로가 유격수 강정호의 실책으로 출루했다. 박한이의 삼진으로 2아웃에 채태인이 우전 안타를 쳐 4번 타자 최형우까지 타순이 돌아왔다.

2아웃 2스트라이크 2볼 상황에서 손승락의 5구는 최형우의 방망이에 맞아 우익 선상을 타고 그대로 흘렀다. 3루에 있던 나바로와 1루 대주자로 나가 있던 김현곤이 홈으로 들어왔다. 동시에 삼성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몰려나와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10일

■잠실

넥센	000	001	000	1
잠실	000	000	002	2

△승 = 안지만(2승) △패= 손승락(1패 1세이브)

슈틸리케 2기 태극전사 '중동으로'

박주영·이근호 투입… 공격전술 변화 관심

축구 국가대표팀이 중동 원정길에 올랐다.

'슈틸리케호 2기'는 중동에서 펼쳐질 2차례의 평가전을 위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첫 격전지인 요르단 암만으로 떠났다. 이번 원정에서 대표팀은 내년에 있을 호주 아시안컵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과 '옥석 가리기'에 돌입한다.

두바이를 거쳐 11일 암만에 도착하는 대표팀은 사흘 간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뒤 14일 오후 11시 30분 암만의 킹 압둘라 경기장에서 요르단 대표팀과 경기를 갖는다. 15일 다시 이란 테헤란으로 떠나 18일 오후 9시 55분 알 아자디 경기장에서 이란 대표팀과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이번 중동 원정은 지난 9월 5일 부임한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의 첫 원정 평가전이다.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을 앞둔 대표팀이 갖는 마지막 연습 기회이기도 하다.

슈틸리케(사진) 감독은 지난 3일 22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중동 평가전은 매우 중요하다. 내년 1월 아시안컵을 대비하는 무대로 삼을 생각"이라며 "상대에게 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요르단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4위로 한국(66위)보다 한 수 아래다. 빡빡한 일정과 중동 현지 응원이 부담스러운 원정길에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최적의 상대를 골랐다. 반면 이란(51위)은 정반대의 상대다. 대표팀은 원정에서 만난 이란에 5전 2무 3패의 기록으로 지금껏 한 차례도 이긴 바가 없다. 통산 상대 전적도 27전 9승 7무 11패로 열세에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중동 원정을 통해 해외파 검증과 공격 전술을 시험해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박주영(29·알 샤밥)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18일 알 샤밥 이적 후 첫 경기만에 데뷔 골을 터뜨렸고 31일에는 이적 후 처음 선발로 기용되는 등 점차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군 전역과 동시에 카타르 리그로 이적한 이근호(29·엘 자이시)도 첫 부름을 받고 박주영과 함께 대표팀 공격을 이끌 예정이다.

결국 박주영과 이근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슈틸리케 감독의 제로톱 전술에 확실히 뭔가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철기자

강한 프런트가 강팀 만든다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한국 프로야구단의 정체성은 모호하다. 수 십 년 넘은 만성 적자 기업이다. 그룹의 홍보기구로 포장하지만 홍보 효과는 솔직히 크지 않다. 내부적으로는 그룹 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외부로는 공적인 기여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30년 넘게 야구단은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주인의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왔다. 모 그룹의 광고성 지원금 없이는 존재가 힘든 것이 지금의 프로야구의 현실이다. 야구단의 연간 예산은 300억 원이 넘는다. 야구단은 300억 원을 벌지 못할 정도로 자생력이 약하다.

때문에 사장 혹은 단장 등 야구단 프런트 수장들은 그룹에서 내려온 임원들의 몫이다. 야구단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사장까지 오른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 오너 혹은 그룹 실세의 측근들이다. 기업 생리에는 밝을망정 정작 야구단의 특수한 경영 마인드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수장의 임기가 짧아 장기적으로 야구단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히려 조직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최근 롯데 야구단의 CCTV 사찰 사태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조급하게 성적만 추구하다 보니 선수관리에서 반인권적인 행태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몇몇 프런트 수장들은 모범적이다. 김승영 두산 사장은 직원에서 단장, 사장까지 오르며 두산의 화수분 야구를 만들어냈다. 김재하 전 삼성 단장도 부사장까지 지내면서 최강 삼성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야구단 운영 마인드가 뼈 속에 녹은 인물들이다.

이태일 NC 사장은 야구전문기자 출신으로 선진적인 경영 마인드와 청사진을 토대로 창단 3년 만에 4강에 올려놓았다. 이장석 히어로즈 구단주도 각고의 노력 끝에 약팀을 강팀으로 탈바꿈시켰다. 야구는 선수와 감독이 하지만 이기도록 만드는 시스템 구축은 프런트의 몫이다. 그래서 야구를 잘 아는 강한 프런트가 더욱 중요하다.

/OSEN 야구전문기자

박인비-김효주 '태극낭자' 총출동

한·일 여자프로골프 대항전 대표팀 명단 발표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한일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2014'에 한국을 대표하는 '태극낭자'들이 총출동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10일 이번 국가대항전에 출전할 한국 대표팀 1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세계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사진)부터 KLPGA 투어 상금왕 김효주(19·롯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상금 1위 안선주(27·모스푸드서비스) 등이 한국 대표로 나선다.

KLPGA 투어 상금 2위 이정민(22·비씨카드)과 4위 이민영(22), 신인왕 선두인 백규정(19·CJ오쇼핑)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최나연(27·SK텔레콤), 최운정(24·볼빅),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 등 LPGA 투어를 빛낸 스타들도 자존심 대결에 나선다.

일본은 JLPGA 투어에서 시즌 3승을 일군 나리타 미스즈(22·온월드홀딩스)를 필두로 JLPGA투어 통산 15승의 대기록을 보유한 베테랑 오야마 시호(37·다이와하우스공업), 사카이 미키(23·국제스포츠진흥협회) 등이 멤버를 꾸렸다.

이 대회는 내달 6일부터 이틀간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며 총상금 규모는 6150만엔(한화 약 5억8500만원)이다. 지난 1999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한일국가대항전에서 한국은 6승 2무 3패의 전적으로 앞서고 있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10일

동부	15	18	14	14	**61**
모비스	19	15	12	20	**66**

프로배구 전적 10일

도로공사	1	3	IBK기업은행
OK저축은행	3	1	현대캐피탈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